第144回國會

5·18光州民主化運動 眞相調査特別委員會 會議錄

第14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 時 1988年12月 1日(木)
場 所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室(145號室)

議事日程

1. 5·18光州民主化運動의眞相糾明을위한聽聞會

審査된案件

1. 5·18光州民主化運動의眞相糾明을위한聽聞會 ……1面

(零時 開議)

○委員長 文東煥 第14次 5·18光州民主化運動眞相調査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읍니다.

---

1. 5·18光州民主化運動의眞相糾明을위한聽聞會

○委員長 文東煥 議事日程 第1項 5·18光州民主化運動의眞相糾明을위한聽聞會를 上程합니다.

朴燦鍾委員님 계속해 주십시오.

○朴燦鍾委員 質問 계속하겠읍니다.

敎科書에서 全斗煥大統領의 就任이후 5共和國의 正當性과 治績에 있어서 그 좋은 점에 대한 敎科書에 說明되어있는 부분을 전부 削除했읍니다. 다음 學期부터는 전부 삭제하게 되어있읍니다. 또 80年5月20日 당시의 戒嚴司令官 李熙性陸軍大將이 聲明을 發表해서 이 光州市民들을 暴徒라고 그렇게 規定을 했는데 지금 이것은 現 盧泰愚大統領 자신의 입을 통해서 光州民主市民이라고 表記하게 되었고 光州暴動을 이른바 民主化運動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關係했던 모든 사람들의 名譽回復을 바로 지난 土曜日 盧大統領이 約束하기에 이른 이 사실을 證人 잘 認識하고 계시죠?

○證人 鄭基用 예. 알고 있읍니다.

○朴燦鍾委員 이것은 證人의 論告文의 흐름으로 비추어보아서 滿 8年만에 歷史가 완전히 反轉되는 狀況을 演出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번째 質問 證人은 지난번 우리 國會의 文公委聽聞會에서 당시 保安司의 言論機關關係責任者中의 한 사람이었던 韓鎔源證人이 여기에 나와서 證言하시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證人 鄭基用 新聞에서 나와서 證言했다는 얘기를 들었어도 TV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읍니다.

○朴燦鍾委員 좋습니다. 그 분은 良心宣言的 證言을 하셨읍니다.

저는 이 事態에 대해서 加害者를 두 種類로 나눕니다. 하나는 犯罪的 加害者이고 또 하나는 道德的 加害者인데 犯罪的 加害者는 바로 12·12「쿠데타」를 통해서 計劃된 演出脚本에 의해서 合法을 假裝한 「쿠데타」를 完成시킨 全斗煥少將一派들이고 道德的 加害者는 어쩌면 證人을 포함해서 또 12·12당시에 個人的으로는 被害者의 입장에 섰지만 歷史的 公人의 입장에서는 그 事態를 막지 못한 아까 午前에 이 자리에서 證言한 당시 陸參總長이요 戒嚴司令官인 鄭昇和씨같은 분 이런 분들이 道德的 加害者의 범위에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午前에 鄭昇和證人에게 그것을 豫防하지 못한데 대한 歷史的 責任이 있다고 얘기했고 본인도 그 責任이 있다고 認定을 했었읍니다. 저는 證人에게 당시 檢察官이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證人에게까지 저는 鄭昇和證人에게 要求한 것과같은 歷史的 責任 이 造作된 事件을 拒否를 했었어야 된다 하는 이런 當爲的 입장에서서 證人에 要求되는 國民的 歷史的 責任을 다하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추궁을 저는 할 생각이 없읍니다.

이것은 道德的 加害者의 種類를 나눈다는 뜻이 아니라 證人에게까지 이것을 强要하기에는 저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證人은 韓鎔源證人이 이 자리에서 보여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心理的 갈등

이것을 다 털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證人이 지금 우리 同僚委員들 일곱분이 그 訊問한데 대해서 一貫된 答辯하시는 자세를 지켜보았읍니다. 아직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신 것같아요. 이것이 어떤 자리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證人에게 要求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質問을 重複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하고자 합니다.

7月9日… 저는 保安司라고 얘기하겠읍니다. 合搜部라고 하는 것이 그 출가의 核이 保安司이기 때문에… 保安司에서 이 事件의 令狀請求書를 갖고 왔다고 그랬지요?

○證人 鄭基用 예. 7月初에 가지고 왔읍니다.

○朴燦鍾委員 令狀請求된 날이 7月9日입니다. 7月9日이 맞습니다.

○證人 鄭基用 7月9日이 혹시 發付된 날짜가 아닙니까?

○朴燦鍾委員 發付된 날짜지요?

○證人 鄭基用 예.

○朴燦鍾委員 그 發付되기 며칠전에 와서 相議를 했읍니까?

○證人 鄭基用 아니지요. 請求된 날짜는 아마 하루전인가 이틀전에 請求가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朴燦鍾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7日 아니면 8日頃이 되겠구만요.

아까 證人은 答辯에서 그것을 추궁하셨다고 했는데 왜 이제 令狀請求書를 갖고 오느냐고 추궁하셨다고 그랬지요?

○證人 鄭基用 예.

○朴燦鍾委員 어느정도 强度를 가지고 추궁했읍니까? 그저 물어본 정도이신가요?

○證人 鄭基用 물어본 것보다는 조금 강력하지요.

○朴燦鍾委員 한번 어떤 强度인지 간략히 說明해 보세요

○證人 鄭基用 ……

○朴燦鍾委員 그러나 이 不法狀態를 證人이 積極的으로 나서서 法務監에게 稟議하고 陸參總長에게 稟議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바로 잡고 그 令狀이 더딘 이유에 대해서 不法監禁事實 또 監禁된 場所 이런 것까지 전부 搜索을 하고 押收 搜査令狀을 發付 받아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措置를 하고 하는데 까지 이르는 일련의 補正的 節次를 施行하실 생각은 없었던 것이 분명하지요?

○證人 鄭基用 하여튼 그때 그것을 제가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責任을 痛感합니다.

○朴燦鍾委員 좋습니다. 바로 이 7月9日은 保安司 司令官인 全斗煥中將이 이미 國保委委員長職을 兼하고 있을 때라는 사실 證人 알고 계시지요?

○證人 鄭基用 國保委常任委員長 아닙니까?

○朴燦鍾委員 國保委常任委員長……

○證人 鄭基用 예. 알고 있읍니다.

○朴燦鍾委員 國保委常任委員長이고 당시 總理나 大統領인 崔圭夏씨도 실제로 有名無實하다 하는 이런 社會的 共感 분위기에서 특히 證人은 어떻든 中堅 檢察官으로서 이런 權力의 向方에 대해서도 대체로 認識하고 계셨지요?

그 분위기가 證人으로 하여금 不法한 監禁 不法한 令狀請求 事態에 대해서 그것을 補正的 입장에서 끝까지 推及할 수 없었던 그 推及하려는 意志를 스스로 포기해버린 狀況이 바로 이 保安司令官이 國保委常任委員長이고 權力의 實權者라는 그런 너무나 공공연한 그 상황에 도저히 저항할 수 없었다 하는 그런 認識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證人 鄭基用 저희들은 全斗煥將軍이 그때 大統領이 되리라 이런 생각까지는 미처 못했읍니다.

○朴燦鍾委員 좋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시로서는 權力의 核을 쥐고 있다 하는 認識은 있었지요?

○證人 鄭基用 그렇지요 그때 그……

○朴燦鍾委員 좋습니다. 證人 이 事件을 途致 받고 起訴하고 裁判에 관여하는 全過程 날짜로 말하면 令狀請求를 相議하러 왔던 7月7·8日께서 12日 送致를 받고 31日에 起訴를 하고 81年1月23日 上告棄却이 되는 이 全 過程을 통해서 證人은 陸本 檢察部에 속하지 않는 다른 軍司法 警察官의 補助를 받은 일이 있읍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바로 保安司 職員의 業務協議건 어떤 名目이든지간에 補助를 받은 일이 있읍니까?

○證人 鄭基用 保安司 職員의 補助는 안받았

어도 당시 情報部 職員의 補助는 받은 바가 있읍니다.

○朴燦鍾委員 保安司 職員하고는 전혀 補助도 안받았다 그러면 協議한 일도 없읍니까?

○證人 鄭基用 없읍니다.

○朴燦鍾委員 起訴段階에서도?

○證人 鄭基用 예. 그렇습니다.

○朴燦鍾委員 裁判 進行中에도?

○證人 鄭基用 예. 그렇습니다.

○朴燦鍾委員 아까 答辯하신 것 중에 法廷에서 證人訊問 過程에서 소란이 일어나고 李信範被告人이 文益煥被告人이 또 金大中被告人이 호통을 치고 하는 이 法廷騷亂 事態가 나서 公判이 一時中斷되고 하는 이런 事態가 있었을 때도 保安司側 要員하고는 一切 그 事態를 바로 잡기 위한 協議를 하신 일이 없읍니까?

잘 기억하세요.

○證人 鄭基用 그것은 당시 中情 職員들의 도움을 제가 받은 사실이 있읍니다.

우선 윤효동證人을 저한테 데려다가 저하고 만나게 해준다든가……

○朴燦鍾委員 좋습니다. 누구입니까? 中情職員이……

○證人 鄭基用 그때 崔課長이라고만 알고 있읍니다. 제가 이름은 자세히 모릅니다.

○朴燦鍾委員 이 全過程을 통해서 保安司對共處長 李鶴捧씨를 相面한 일이 있읍니까?

○證人 鄭基用 예. 만난 일이 있읍니다.

○朴燦鍾委員 언제 어디서 무슨 일로……

○證人 鄭基用 그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요.

낮에 調査를 전부 마치고 저녁때 저희들이 앉아서 檢察官들하고 책상을 놓고 빙둘러 앉아서 일하고 있을 때 그때 한번 찾아왔더군요.

○朴燦鍾委員 그럼 公式으로 온 것은 아닙니까?

○證人 鄭基用 아! 公式으로 온 것 아닙니다.

○朴燦鍾委員 와서 무슨 얘기했읍니까?

○證人 鄭基用 그래서 이게 軍法務官들이 이렇게 큰 事件을 自力으로 解決할 수 있겠느냐….

아주 유능한 公安檢事들의 指導를 좀 받아볼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때 一切 거절을 했읍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 補助를 받으라고 얘기하면 좋다 이것 裁判權 指定 받아가지고 民間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거기로 가져가라 말이야….

저희들은 그때 法務官으로서 自尊心때문에 그렇게 해서 거절을 해보낸 적이 있읍니다.

○朴燦鍾委員 좋습니다. 당시 이른바 合搜部는 그 搜査費를 넉넉히 썼다고 하는 것이 鄭昇和證人의 證言 등에서도 나타납니다.

10·26 직후에 靑瓦臺 秘書室에서 발견된 9億원중에 1億원을 임의로 全斗煥將軍이 合搜部의 費用으로 쓰고 2億원을 參謀總長 機密費로 쓰라고 갖다줄 정도로 搜査費를 마음대로 調達해서 썼던 狀況인데 合搜部를 통해서 檢察官들이 수고하고하니까 搜査費 명목으로 補助를 받거나 한 일이 없읍니까?

○證人 鄭基用 없읍니다.

○朴燦鍾委員 전연 없읍니까?

○證人 鄭基用 예. 없읍니다. 저희들은 저희 監室에도 戒嚴費用이 많이 나오고 있읍니다. 그래서 兵科長한테 얘기해서 그것 얻어쓰고 그랬읍니다.

○朴燦鍾委員 證人은 李信範씨 잘 아시지요?

○證人 鄭基用 예. 그때 같이 裁判받았던 분입니다.

○朴燦鍾委員 李信範씨가 證言 한 바에 의하면 公判進行中에 陸本 普通軍法會議 法廷 뒷편에서 合搜部에 調査받던 것과 다른 內容의 陳述을 할 때는 休廷時間에 法廷 뒷편의 골방에 끌려가가지고 合搜部의 崔搜査官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合搜部司法警察官 段階에서 調査받을 때 內容을 번복하지 말라는 협박을 계속 받았다고 證言하고 있는데 이 事實을 檢察官으로서 證人은 알고 계십니까?

○證人 鄭基用 今時初聞입니다.

○朴燦鍾委員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 李鶴捧씨가 不法監禁되어 있었던 金大中씨와 鄭昇和씨를 찾아가가지고 協力을 하라 라든지 抗訴를 포기하라 라든지 이런 것을 종용하는데 있어서 全斗煥將軍의 완전히 代理人 役割을 한 일 이것을 檢察官으로서 알고 계십니까?

○證人 鄭基用 저도 그것은 이번 聽聞會

「텔레비젼」을 보고 알았읍니다.

○朴燦鍾委員 대단히 외람됩니다마는 合搜部의 그당시 위세로 봐서 對共處長인 李鶴捧씨가 직접 證人에게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直前 參謀總長을 바로 데려다가 물拷問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까 證人은 그 起訴段階에서 陸本 檢察內部의 決裁段階를 거치는 外에 다른 機關과의 協議가 전혀 없었다고 얘기했지요?

○證人 鄭基用 그렇습니다.

○朴燦鍾委員 事實입니까?

○證人 鄭基用 예. 事實입니다.

○朴燦鍾委員 누구하고 協議했읍니까?

○證人 鄭基用 뭐를 協議합니까?

○朴燦鍾委員 起訴與否에 대해서…

○證人 鄭基用 우리 檢察官들하고 議論해서 했읍니다.

○朴燦鍾委員 그러면 法務監하고도 議論하지 않습니까?

○證人 鄭基用 그렇게 하고 이제 法務監한테 決裁올릴 때 法務監 다른 의견 있으면 받아주어야지요.

○朴燦鍾委員 保安司의 送致意見의 그 테두리 안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없지요?

○證人 鄭基用 제 생각에는 그때 저희가…

○朴燦鍾委員 가령 內亂豫備陰謀 煽動 戒嚴布告令 違反 이런 큰 줄기에 있어서 適用 罪名이나 犯罪事實의 그 큰 흐름에 있어서 決定的으로 不起訴處分을 했거나 한 部分이 전혀 없지요?

○證人 鄭基用 그렇습니다.

○朴燦鍾委員 아까 證人은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 同僚委員들이 계속해서 그 事件을 造作했다고 質問을 하셨는데 저도 證人이 事件을 造作하지 않았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 말은 證人이 保安司에서 送致된 의견 그대로 인정해서 起訴했기 때문에 證人의 손으로 거기에 變更을 가하지 않았다 그래서 造作하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해석해서 들었는데 그런 槪念입니까? 지금 이 時間에 생각해도…

○證人 鄭基用 저희들은 例를 들어서 自白을 않는 것을 붙잡아다 때려가지고 拷問을 해서 自白을 받아가지고 起訴를 했다든지 이런 事實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朴燦鍾委員 그러면 그 證人들이 적어도 最低 52日以上 不法監禁狀態에서 正規的인 留置場所에 收監되어 있지도 안았고 또 엄청난 拷問을 당하고 있었다 우선 不法監禁狀態 그 自體가 軍法會議法이나 刑事訴訟法 所定의 바로 拷問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거기에 대해서 證人이 전혀 추궁해보지도 않고 지금 와서 때리지도 안았다 合搜部가 만든 그 司法警察官吏의 送致意見 그대로 起訴하면서 나는 造作한 일이 없다 하는 이런 證言態度가 아까 제가 書頭에 말한 것처럼 8年의 歷史가 지금 反轉되는 순간인데 여전히 마지막 論告했을 때 "나는 최선을 다 했다"하는 이것을 계속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證人 鄭基用 예. 당시로서는 저는 최선을 다 했읍니다.

○朴燦鍾委員 당시는 그랬는데 당시로 최선을 다 했다는 뜻은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證人으로서는 拒否할 수 없는 外壓의 포로가 되어 있는 狀態입니다. 따라서 證人에게까지 왜 이것을 起訴를 拒否하고 不法監禁을 調査를 하고 그런 歷史的 當爲性에 입각해서 그 任務에 충실하지 않았느냐 하는 質問을 저는 안 한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읍니다. 지금 지내놓고 歷史가 變하는 이 순간에 서서 생각해 볼때 證人의 현재 심경은 정말 歷史的 當爲에 있어서 그 당시에 무엇이 當爲였느냐 하는 것을 되돌이켜 볼때 현재의 심경을 이야기해보세요.

○證人 鄭基用 글쎄요. 그 歷史的 當爲다… 가능하면 사실을 좀 물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자꾸 의견을 물으시니까요 제가 깊이 생각…

○朴燦鍾委員 12·12에서 5·17戒嚴擴大過程을 거치는 사이에 戒嚴司令官이고 現役陸軍大將이 체포가 되고 大統領이 無力化돼가지고 不法的인 辭任을 당하는 그렇게 해서 總理도 大統領도 이 軍人들의 폭력앞에 屈伏해 버리는 이 狀況아래에서 證人에게까지 當爲的인 行動을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러면 이 論告 80年9月11日의 이 論告 "實體的 眞實發見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하는 이 입장을 조금도 修正하실 생각

이 없읍니까?

이것을 저의 마지막 質問으로 하고 答辯을 기대하겠읍니다.

○證人 鄭基用 예. 없읍니다.

○朴燦鍾委員 없다…

○委員長 文東煥 수고하셨읍니다.

다음에는 民主正義黨의 朴熺太委員 質問해 주십시오. 所要時間은 10分이 됩니다.

○朴熺太委員 10分입니까?

○委員長 文東煥 예.

○朴熺太委員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읍니다.

아까 윤효동이라는 間諜이 金大中事件의 證人으로 나왔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다고 그랬는데 이 윤이라는 間諜이 轉向한 間諜입니까 轉向하지 않은 間諜입니까?

○證人 鄭基用 그때 轉向한 間諜이었읍니다.

○朴熺太委員 무엇을 立證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데려왔읍니까?

○證人 鄭基用 아까 그 금방 말씀드린 외에는 지금 기억나는 것이 없읍니다. 그 사람이 北傀間諜으로 있을 적에요 그것은 北傀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南韓赤化戰略의 一環으로 韓民統을 활용하도록 해라 말이지요. 그래가지고 韓民統組織員인 곽동의를 下部線으로 두고 썼다 대개 證言內容이 지금 그런 것으로…

○朴熺太委員 그러니까 韓民統이 北傀의 操縱下에 있는 團體다 하는 것을 立證하기 위한 것입니까?

○證人 鄭基用 그렇지요.

○朴熺太委員 아까 證人의 證言에서 金大中씨 內亂陰謀事件에서는 鄭東年씨에게 돈 준 부분을 빼더라도 內亂罪가 충분히 성립한다 이렇게 여러번에 걸쳐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뜻에서 그렇게 성립이 됩니까?

○證人 鄭基用 그것은 아마 公訴狀을 쭉 읽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說明이 아주 복잡해질 것같습니다.

○朴熺太委員 간단히 이야기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證人 鄭基用 글쎄요.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요. 그 부분 하나만 딱 빼더라도 內亂陰謀는 이상없이 성립을 한다는 말씀밖에 저는 지금 드릴 수가 없읍니다.

○朴熺太委員 그러니까 犯罪事實이 여러 個이기 때문에 그 하나를 빼도…

○證人 鄭基用 그럼요. 犯罪事實이 數十個 아닙니까?

○朴熺太委員 아까 金相賢씨의 任意同行報告書에 보면 그 金相賢씨를 同行해온 날짜는 5月19日인데 그 5月19日에 이미 光州의 그 여러가지 被害狀況이라든가 또 뒤에 밝혀진 鄭東年에 대해서 돈 준 부분이 적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요?

○證人 鄭基用 예. 그렇습니다.

○朴熺太委員 어떻게 5月19日字 任意同行報告書에 이런 것이 적힐 수 있읍니까?

○證人 鄭基用 글쎄요 저한테 그것을 물으시면 저는 答辯을 못드립니다.

○朴熺太委員 아까 證人 이야기는 위의…

○證人 鄭基用 그래서 제 추측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추측이 뒤에 쓰면서 날짜를 소급시킨 모양이다. 그것이 제 추측입니다. 그래 金相賢씨에 대한 搜査結果報告를 쓰면서 그것이 어떻게 任意同行報告書에다 그것을 쓰고 훨씬 뒤에 쓰면서 날짜는 19日로 소급시킨 것이 아닌가…

○朴熺太委員 任意同行報告書라는 것은 어디에 쓰는 文書입니까?

○證人 鄭基用 그 任意同行할 때 원래 써야 되는 文書겠지요. 그 당시에 任意同行해 놓고 바로 報告를 해야 될텐데 그것이 搜査官의「미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朴熺太委員 그러니까 任意同行 즉시에 써야 되는데 證人이 추측컨대는 그때 쓰지 않고 뒤에 쓰면서 날짜만은 소급해서 적었다 이런 이야기지요?

○證人 鄭基用 예. 그런 것같습니다.

○朴熺太委員 軍檢察部에서 光州의 일로 인해서 民主化運動으로 인해 가지고 돌아가신 분의 數字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公式的으로 檢屍 등을 통해서 확인해본 일이 있읍니까?

○證人 鄭基用 저는 光州事態는 잘 모릅니다.

단지 그 때 언제인가요 제가 國防部에 있을 때인가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어느 委員님이 質問을 하셔서 제가 公式文書를 찾아 가지고 그때 보니까 192名인가 그렇게 되어 있더만요.

그 당시 狀況은 저는 모릅니다.

○朴熺太委員 알겠읍니다.

○委員長 文東煥 고맙습니다. 이세 마지막으로 金光一委員 역시 10分이 配當되겠읍니다.

○金光一委員 證人은 지금 辯護士라 하셨지요?

○證人 鄭基用 예. 그렇습니다.

○金光一委員 辯護士는 國民의 基本的 人權을 옹호하고 社會正義의 실현을 그 使命으로 하고 있구만요.

요새는 그런 業務에 從事하고 있고…… 證人이 다룬 이 事件은 合同搜査本部에서 送致받은 것이라고 그랬지요?

○證人 鄭基用 예. 그렇습니다.

○金光一委員 合同搜査本部에서 그 被疑者들을 이째서 逮捕했다고 생각했읍니까? 왜 逮捕했다고 생각했읍니까?

○證人 鄭基用 글쎄요. 그것은 合搜에다가 물어야 되실 것을 저한테 물으니까 제가 살答辯하기가……

○金光一委員 그 事件을 送致받아 가지고 有無罪를 판단하고 起訴한 檢察官인 證人이 이 20餘名의 우리나라의 저명한 人事들을 왜 逮捕해가지고 送致했던 것에 대해서 調査도 안하고 또 생각 안했읍니까?

○證人 鄭基用 그것은 犯罪事實에 선부 나와 있지 않습니까?

○金光一委員 아니! 왜 그랬는지 모릅니까? 犯罪가 있다고 해서 다 逮捕하는 것 아니지… 그렇지요? 證人도 아까 與件上 上官들의 政治關與가 있으면 내가 아마 事件 못했을 것입니다. 그랬지요?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요. 왜 逮捕했는지는 살 모릅니까? 그 목적을……

○證人 鄭基用 예.

○金光一委員 아! 모른다…… 더구나 犯罪가 特定이 되어 가지고 53日間 땅굴에서 헤맸다 말이오. 그러면 犯罪가 特定도 안되는 事件을 가지고 우선 잡아 놓고 보자…… 왜 그랬는지 모르겠읍니까? 역시 모르겠어요? 살 모르면 모르겠다고 하세요. 빨리……

○證人 鄭基用 예. 살 모르겠읍니다.

○金光一委員 사! 그 事件을 잘 모르는 채로 起訴를 했는 모양인데 그 당시에 證人은 起訴하면서 이 事件은 반드시 有罪判決을 받을 것이다 確信을 가졌지요?

○證人 鄭基用 예. 그렇습니다.

○金光一委員 또 그 犯罪事實에 대해서는 死刑을 宣告함이 마땅하다 해가지고 死刑求刑을 하셨지요? 한 분에 대해서는…

○證人 鄭基用 예. 그렇습니다.

○金光一委員 그러니까 死刑을 求刑을 한 이상 死刑이 宣告가 되어야 하고 死刑宣告가 있은 이상 死刑執行이 되는 것이 檢察官으로서 正義感에 合致하는 얘기지요. 내 감정을 묻는 것이 아니야! 그렇지요?

○證人 鄭基用 그것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死刑을 求刑하게 된다는 것은 法定刑이 死刑밖에 없기 때문에 死刑을 求刑했읍니다.

○金光一委員 그러니까 法定刑에 충실하려면 死刑이 宣告되고 死刑이 執行되는 것이 안옳았겠읍니까?

○證人 鄭基用 그런데 判事가 酌量減輕을 하면 死刑은 10年懲役까지 내려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裁量權이 있읍니다. 判事가…

○金光一委員 그러면 判事가 酌量減輕해서 死刑 안주기를 바라고 했다 하는 말입니까?

證人이 그 당시에 추상과 같은 論告를 하면서 死刑을 주기를 바라고 했다는 말입니까?

어때요? 對答 안하면 안하고…

○證人 鄭基用 그것 求刑은 제가 하는 것이고요, 宣告는 裁判部에서 하는 것입니다.

○金光一委員 死刑 안됐지요. 執行 안됐지요?

○證人 鄭基用 그렇습니다.

○金光一委員 얼마만에 나왔읍니까?

○證人 鄭基用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읍니다.

○金光一委員 死刑되어야 될 사람이 死刑이 안 되고 한 2年만에 나온 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檢察官으로서는…… 어째 罪가 신통하지 않아서 死刑이 안 된것 아닐까? 만들어 놓은 것이…… 그런 생각은 혹시 안 들어요? 지금와서 생각해 보면……

○證人 鄭基用 글쎄요, 그런 생각은 안듭니다.

○金光一委員 안 들어요? 그러면 이 軍法會議와 大法院을 거치는 동안에 엄정하게 裁判된 것을 이 大統領이 國務會議에서 부당하게 刑을 깎아주었구만! 그렇게 생각 됩니

까?

○證人 鄭基用 결국은 政治的인 事件이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金光一委員 좋아! 事件을 만들 때도 政治的으로 만들었다고 생각 안합니까?

○證人 鄭基用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政治人들이 받은 裁判이 政治……

○金光一委員 예. 좋아요 그 대답 나왔으면 되었어…… 그 다음에 그래 光州內亂陰謀事件…… 서울에서 內亂이라 이 말이지요? 光州와 별도의 內亂이 成立되더라 이 말이지요?

○證人 鄭基用 그러니까 全國的입니다.

○金光一委員 內亂이야 全國的이지 그러면 光州內亂은 서울內亂…… 그 사람들이 韓國의 일부이던가요?

○證人 鄭基用 반드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金光一委員 일부이든가요 아니든가요? 내 10分밖에 없어요 5分밖에 지금 안 남았어요.

○證人 鄭基用 5月20日을 기해서……

○金光一委員 그렇든가요 안 그렇든가요?

○證人 鄭基用 그런데 그것하고 光州하고는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金光一委員 예. 그렇지요. 그래 光州事件이 서울에서 잡아넣고 나니까 일어난 것 같습디까? 아니면 잡혀들어가면서 미리 光州에 다가 事件 일으키라고 다 해놓고 들어간 것 같습디까?

○證人 鄭基用 누가 말입니까?

○金光一委員 犯人들이…… 證人이 보시기에는 추상같은 檢察部長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證人 鄭基用 光州에서……

○金光一委員 잘 모르겠어요?

○證人 鄭基用 光州에서 일어난 것은 서울이것하고는 별 상관없이 제 생각에는 金總裁님을 拘束하니까 일어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金光一委員 알았어요. 그 金大中씨에 대해서는 韓民統의 日本에서 있었던 事件을 갖다가 한 모양인데 그것이 우리나라 政府하고 日本政府 사이에서 金大中事件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論하지 말자 그리고 韓國政府는 日本에서 있었던 그 事件 앞으로 절대로 刑事問題 안 하기로 韓·日兩國間에 合意한 사실 몰랐읍니까?

○證人 鄭基用 예. 저는 起訴할 당시까지 몰랐읍니다.

○金光一委員 아! 몰랐다. 알았더라면 안했겠네요?

○證人 鄭基用 저는 관심도 없이 그냥 起訴를 했읍니다.

○金光一委員 國際間의 協約을 깨고……

○證人 鄭基用 그것을 제가 몰랐으니까……

○金光一委員 몰랐어? 알았으면 안 했을 것이고……

○證人 鄭基用 그것을 알았으면 合搜本部같은 데서 왜 그것을 送致했겠읍니까?

○金光一委員 合搜本部보다는 檢察官이 높지 않소?

○證人 鄭基用 政治的인 문제는 좀더……

○金光一委員 좀더 알아봐야지…… 國防部長官을 통해서 위에다 알아봐야지요. 그렇지요? 모르면……

○證人 鄭基用 그것은 저는 전혀 몰랐읍니다.

○金光一委員 그 다음 證人은 이것이 政治的인 事件이 되기 때문에 무리한 事實認定을 했거나 또는 法律適用을 무리하게 하고 또 捜査에 있어서도 不法 不當한 일이 좀 있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證人 鄭基用 요즘에 와서 聽聞會를 들어보니까 그 양반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金光一委員 그 때는 그런 생각 안 했고…

○證人 鄭基用 예.

○金光一委員 그 중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러면…… 證人은 捜査받고 있는 그 被疑者들에 대해서 非辯護人 接見禁止法令을 내렸다고 했지요? 軍法會議法에 있다고 했지요?

○證人 鄭基用 예. 그렇습니다.

○金光一委員 131條에는 被告人의 경우에는 軍法會議가 決定을 해야 되고 그것이 準用되는 235條에는 被疑者의 경우에도 역시 131條가 準用되어서 軍法會議의 決定없이 檢察官이 제 마음대로 接見禁止를 못하는 거라고 알고 있읍니까?

○證人 鄭基用 저는 그렇게 생각 않고 있읍니다.

○金光一委員 法에 그렇게 되어 있어! 서울法大 자꾸 해 가지고 좀 창피한데 李仁濟委員이나 張石和委員이나 저도 서울法大 나왔어요. 그리고 53日간의 長期拘禁이 말이지요. 그것을 나중에 알고 야단을 안친 것이 잘못이다 그랬는데 그랬지요?

○證人 鄭基用 예. 그랬읍니다.

○金光一委員 야단 안 친것 그것만 잘못이 아니라 만약 그것 문제를 안 따지면 有罪判決을 받는데 決定的인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부당한 長期拘禁인 경우에는 任意性이 문제 되어가지고 證據能力을 잃는다는 것 알고 있지요?

○證人 鄭基用 예. 알고 있읍니다.

○金光一委員 그러니까 부당한 長期拘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은 이 事件이 軍法會議에 가서 有罪가 되느냐 無罪가 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기 때문에 당시 檢察官으로서는 調査를 했어야 되겠지요? 미쳐 생각 못 했읍니까?

○證人 鄭基用 하여튼 당시에 그것을 못 한 것은 제가……

○金光一委員 몰라서 못 했느냐 알고 안 했느냐 이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잘 몰랐읍니까? 아니면 與件이 그렇게 따질 형편이 못 되었읍니까?

자! 그 다음 잠을 안 재운 것은 檢察이 아니고 搜査機關입니다. 檢察에서는 造作을 안 했읍니다 하는 말은 搜査機關에서 잠을 안 재우고 造作을 했다는 뜻도 됩니까?

○證人 鄭基用 그것은 자꾸 저한테 말입니다.

○金光一委員 그런 뜻이 됩니까?

○證人 鄭基用 저도 金大中總裁님이나 이런 분들 光州特委 것은 철저하게 TV를 봤읍니다. 그 양반들이 계속……

○金光一委員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모릅니까?

○證人 鄭基用 하여튼 그 당시에는 잘 몰랐읍니다.

○金光一委員 몰랐다?

두가지만 묻는데… 퍼뜩요.

○證人 鄭基用 예.

○金光一委員 하나는 그 당시에 民間人을 軍法會議에서 다룰 수 있었던 것은 非常戒嚴때문에 그렇지요?

○證人 鄭基用 그렇습니다.

○金光一委員 非常戒嚴은 適法한 要件이 있었다고 봅니까? 檢察官으로서… 戰爭 또는 戰爭에 準할 狀態에서 敵의 包圍 攻擊으로 인해서… 그런 狀況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아니 證人이 보시느냐 안보시느냐 이거예요? 大法院까지 通過된 것이니까 굳이 따질 것 없는데 어떻습니까?

○證人 鄭基用 그 法律要件에는 딱 맞지를 않기 때문에…

○金光一委員 않지요?

○證人 鄭基用 예.

○金光一委員 마지막 한가지 光州에서 사람을 軍人이 쏘았을 때 發砲命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은 正當行爲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李仁濟委員께서 잘 따지셨는데 發砲命令이 없어도 그 狀況에 따라서 發砲를 할 수 있다 하는 그 自衛權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 自衛權이 바로 正當防衛를 의미한다는 뜻입니까?

發砲命令이 없어도 軍人이 내가 죽을성 싶으면 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이지요?

○證人 鄭基用 그렇겠지요.

○金光一委員 그렇겠지요… 그러나 軍人이 國民한테 부당하게 미리 처음에 暴行을 한다든지 가혹한 行爲를 해가지고 그 쪽에서 성이 나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挑發한 侵害行爲에 대해서도 正當防衛權이 認定됩니까? 證人이 아시기에… 法務監을 지낸 분이기에… 어때요?

○證人 鄭基用 그런 경우에는 正當防衛權을 認定하기 곤란하겠지요.

○金光一委員 곤란하지요?

○證人 鄭基用 예.

○金光一委員 뿐만 아니라 國民의 生命과 身體를 保護할 義務가 있는 軍人으로서는 그런 경우를 당했다 하더라도 國民의 生命을 優先的으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回避할 義務가 있지요? 그것 알고 있읍니까?

○證人 鄭基用 예. 알고 있읍니다.

○金光一委員 피해 주면 된다 말이야… 그것 알고 있어요?

그래서 光州에서는 自衛權問題가 論議될 수

없다는 것을 證人은 아십니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證人 鄭基用 하여튼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겠지요. 마지막 순간까지…

○金光一委員 軍人이 피해야 되겠지?

○證人 鄭基用 그렇지요.

○金光一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수고하셨읍니다. 이상…

○李海瓚委員 議事進行 發言 한가지만 하겠읍니다.

○委員長 文東煥 예.

○李海瓚委員 平民黨의 李海瓚委員입니다.

本委員은 바로 證人이 檢察部長을 하신 戒嚴軍法會議에서 金大中등內亂陰謀事件의 한 關係者로 裁判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當事者의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證人에 대해서 訊問을 삼가했읍니다. 證人이 約 다섯時間에 걸친 訊問에 答辯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았읍니다. 지켜보면서 몇가지의 중대한 僞證을 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本人은 분명히 目擊을 했읍니다.

本委員이 裁判을 받아… 바로 證人에 의해서 起訴가 되어서 裁判을 받았고 裁判을 進行하는 것을 직접 目擊을 했기 때문에 證人의 證言에는 여러가지 심대한 僞證이 있다 라는 것을 確認할 수가 있었읍니다.

몇가지 사실만을 지적하겠읍니다.

우선 첫째로 證人이 管掌한 公訴狀이 당시 新聞에 報道된 것이 있고 本國會 特委에서 提出을 要求해서 國會 特委에 提出한 公訴狀이 보면 현저하게 다릅니다.

당시 新聞에 報道된 公訴狀에는 72年부터 73年度까지의 韓民統 관계에 관한 부분이 없읍니다. 그런데 本 特委에 提出한 公訴狀에는 그 부분이 실려 있읍니다. 이것은 바로 金光一委員이 지적한 것처럼 韓·日關係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公訴狀이 提出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證人이 韓·日關係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故意的인 僞證이라고 本委員은 판단을 합니다.

두번째 裁判過程에서 모든 被告人들이 長期拘禁으로 인해서 不法하게 拘束되어 있었고 또 軍警察過程에서의 그 陳述內容도 모진 拷問과 强壓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抗辯을 했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證人은 그 사람들이 檢察陳述過程에서 전혀 異議없이 순순하게 陳述한 것을 가지고 起訴했다 라고 僞證을 하고 있읍니다. 本委員도 軍檢察官에게 軍·警察官에 있어서의 陳述은 무자비한 拷問에 의한 不可抗力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혀 任意性이 없다 라고 抗辯을 했었읍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도 證人은 대단한 僞證을 했읍니다.

그리고 또 證人은 檢察部長으로서 모든 관계된 당시의 檢察官을 指揮하고 있는 모습을 本委員은 여러 차례 보았읍니다. 여섯名인가의 檢察官이 있었는데 證人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名의 檢察官은 檢察經驗이 日淺한 中尉 大尉정도의 職業的인 軍檢察官이 아니고 司法試驗을 合格해서 一時的으로 軍檢察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었읍니다. 바로 證人만이 오로지 職業的인 軍檢察官으로서 나머지 檢察經歷이 日淺한 檢事들을 指揮하면서 그 公判을 이끌어가는 것을 本委員은 똑똑히 보았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證人은 자기가 맡았던 부분외에는 나머지는 모른다고 證言하고 있읍니다. 이것 역시 당시 사실을 僞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裁判進行過程에서도 合同搜査本部 즉 合同搜査本部內에 있는 情報部의 崔課長 朴課長 金課長 이런 사람들이 裁判廷의 뒷전에 와서 檢察에게 손으로 「사인」을 하고 裁判部에 「사인」을 하는 과정을 本委員은 똑똑히 보았읍니다. 바로 裁判進行 자체를 合搜部에서 파견나온 사람들이 造作的인 次元에서 進行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證人은 사실 발견에 최대로 노력했다 라고 하는 僞證을 하고 있읍니다. 바로…

(「이것은 議事進行發言이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이러한 僞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하십시오! 바로 이런 僞證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을 本委員이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으로 證人을 僞證嫌疑로 告發할 것을 提案을 합니다. 또 하나 證人께서는 이 24名의 內亂陰謀 被告人들은 社會的으로 영원히 追放시켜야 된다 라고 아주 서슬이 퍼런 論告를 하는 것을 本人은 똑똑히 들었읍니다. 바로 證人

이 그렇게 論告를 했던 24名의 被告中에서 몇 사람이…그 중에 한 사람이 本委員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證人을 訊問은 안했읍니다. 바로 當事者이기 때문에… 그러나 證人의 그 뻔뻔스러운 僞證에 더 이상 本委員으로서는 지켜만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議事進行發言權을 얻어서 證人을 僞證嫌疑로 告發할 것을 動議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이렇게 하십시다.

이것은 僞證罪로 告發하신다면 이것을 文書로 써서 幹事會議에 내시면 幹事會議에서 檢討해서 全體會議에 回附하겠읍니다.

○金光一委員 議事進行發言이 있읍니다.

○委員長 文東煥 예.

○金光一委員 지금 굉장히 빠듯한 시간을 쪼개 써 가면서 進行을 하고 있읍니다. 이 다음 證人으로 金宗培證人이 있고 더구나 金宗培證人은 우리 民主黨에서 申請한 證人입니다. 그런데 어떤 證人의 證言이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僞證이다 하면서 僞證의 종류를 쭉 들고 僞證을 告發하자 안하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議事進行發言의 성질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文東煥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金光一委員 그러니까 그런 發言 자체를 中斷시켜 주셔야지요.

○委員長 文東煥 예. 그렇게 앞으로 하겠읍니다.

證人에 대해서 더 訊問할 것이 없으면 우리 鄭基用證人의 訊問을 이것으로 마치겠읍니다.

그러면 10分間 停會를 하겠읍니다.

(零時39分 會議中止)

(零時57分 繼續開議)

○委員長 文東煥 成員이 되었기에 다시 會議를 續開하겠읍니다.

다음 金宗培證人의 證言을 듣겠읍니다. 證言을 듣기 전에 關聯法律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國會에서의 證言鑑定等에관한法律에는 證人이 同法을 違反하면 處罰할 수 있는 規定과 이 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證言內容에 대하여 不利益處分을 받지 않는다는 保護規定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證人의 宣書가 있겠읍니다.

證人 앞으로 나오셔서 宣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證人 金宗培

(證人宣書)

○委員長 文東煥 먼저 統一民主黨의 朴泰權委員 質問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朴泰權委員 統一民主黨 朴泰權입니다.

證人께서는 5·18光州抗爭 당시에 朝鮮大學校 貿易科3學年 在學中이었지요?

○證人 金宗培 예.

○朴泰權委員 그리고 5·18抗爭 당시 後半部에는 市民·學生鬪爭委員會 總委員長을 맡고 있었읍니까?

○證人 金宗培 그렇습니다.

○朴泰權委員 證人은 光州民主抗爭時 最後까지 全南道廳에서 鬪爭하다 戒嚴軍에 의해 逮捕되어 軍事法廷에서 內亂罪로 死刑宣告를 받았다는데 사실입니까?

○證人 金宗培 그렇습니다.

○朴泰權委員 證人은 5月 5·18光州民主化運動 당시 처음부터 最後까지 示威現場에 參與한 本 聽聞會 最初의 被害者陳述이 되는 셈입니다. 산 證人으로서 그만큼 5·18의 眞相을 規明하고 올바른 歷史的 評價를 위해 생생한 體驗을 사실대로 證言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本委員은 5·18光州民主化運動의 勃發過程 示威擴大過程 그리고 5月21日 道廳앞 發砲에 대하여 訊問하고자 합니다.

먼저 17日까지 있었던 몇 가지 事項을 訊問하겠읍니다.

證人은 5月14日에서 16日까지 校內 및 市內의 學生示威에 가담했었읍니까?

○證人 金宗培 예.

○朴泰權委員 그당시 示威의 주된 口號는 무엇이었읍니까?

○證人 金宗培 非常戒嚴 解除하라 過度政府 퇴진하라 그리고 政治日程 단축하라는 口號들이 주로 있었읍니다.

○朴泰權委員 예. 그때 示威에서는 示威隊들이 投石이나 火炎瓶 등을 사용한 적이 있었읍니까? 그밖에 다른 暴力的인 무슨 행위가 있었읍니까?

○證人 金宗培 平和的 示威였기 때문에 火炎瓶같은 것은 전혀 사용한 적이 없었읍니다.

○朴泰權委員 그렇다면 5月14日에서 16日까지의 學生示威는 대단히 平和的 示威였다고 보는데 그때 警察에서의 鎭壓은 어떤 상태였읍니까?

○證人 金宗培 平和的 示威였기 때문에 警察들이 相互 協調해서 특히 5月16日 마지막날 聯合示威때는 횃불示威를 하는데 警察들이 「마스코트」해 가지고 질서있게 平和的 示威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警察들이 鎭壓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朴泰權委員 그러면 그당시 光州市民들의 반응은 어떠했읍니까?

○證人 金宗培 질서있는 平和的 示威에 市民들이 대단히 호응이 좋았었읍니다.

○朴泰權委員 5月17日은 示威가 전혀 없었지요?

○證人 金宗培 예.

○朴泰權委員 그 당시는 전국적으로 學生들이 梨花女大에서 모여서 政府의 어떤 조치를 기대했고 또 중동에 출장나가 있는 崔大統領이 돌아오면 어떠한 民主化日程 또는 그 民主化를 요구하는 市民들 또는 全國民의 바람이 어떤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런 示威가 없었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런 기대심리가 사실은 물거품화되고 말았지요? 證人께서 證言을 정리한다면 5月17日 非常戒嚴全國擴大 이전의 光州學生示威는 市民들이 호응하였고 또 警察도 무력이나 어떤 강압적인 그런 진압을 아니했고 즉 말하자면 모두가 平和的 示威로서 안정정국에 대해 각성을 촉구하고 조속한 民主主義의 실현을 요구하는 지극히 정당한 示威였다고 보는데 證人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證人 金宗培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朴泰權委員 또한 당시 示威에서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음모나 또는 내란의 음모가 있어서 이 示威에 어떤 선동을 영향을 준 그런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의미는 없었지요?

○證人 金宗培 전혀 내란할 생각은 없었읍니다.

○朴泰權委員 전체적인 示威隊의 분위기도 그랬었지요?

○證人 金宗培 예.

○朴泰權委員 더군다나 5月17日에는 조속한 民主化日程에 대한 기대를 갖고 學生을 비롯한 모든 市民들이 본업에 충실했었고 상당히 자중하는 상태에서 기다리던 民主化措置는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政權奪取에 눈이 먼 極少數 政治軍人에 의해서 非常戒嚴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바람에 그 당시에 證人을 비롯한 光州에 있었던 많은 學生과 市民들이 이러한 분위기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었읍니까?

○證人 金宗培 非常戒嚴 自體가 그 당시에는 저는 불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항할 수 밖에 없었읍니다. 또 市民들 분위기도 마찬가지였고 學生들 분위기도 마찬가지였읍니다.

○朴泰權委員 그러면 이제 18日부터 20日까지 사이의 示威擴大와 또 過剩鎭壓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本委員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미 5月17日 臨時國務會議에서 非常戒嚴의 全國擴大를 결의하기 두時間前부터 19時40分 즉 17日 19時40分부터 충정作戰 指示가 하달되고 이에 따라서 空輸部隊들이 이미 光州市內에 진입했읍니다. 그래서 18日 새벽 두時에 이미 全南大學校와 朝鮮大學校에는 이 空輸部隊들이 배치됐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읍니다. 證人은 그당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읍니까?

○證人 金宗培 18日 午前에 空輸部隊들이 全南大學校하고 朝鮮大學校에 투입되어가지고 많은 學生들을 특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學生들을 연행해간 것으로 저는 알고 또 그당시에 소문이 그렇게 났었읍니다.

○朴泰權委員 그러니까 18日 午前에 學校에 가서 알았었던거지요?

○證人 金宗培 저는 그날 學校에 나가지 않고 市內에 있었읍니다.

○朴泰權委員 市內에 있었는데 學校에 갔던 친구들이나 또는 도서관에서 쫓겨난 동료들에 의해서 그런 소식을 접했다 이 말씀이지요?

○證人 金宗培 예. 그렇습니다.

○朴泰權委員 그러면 이날 學校에 등교하던 많은 學生들이 正門앞에서 戒嚴軍에 의해서 구타 당하거나 또는 내쫓기거나 해서 市內로 나왔고 또 學校에 미처 가지 않았던 많은 學生들은 이 소식을 듣고 市內에 모였었는데 錦南路에 모였던 것이 맞습니까?

○證人 金宗培 예. 그렇습니다.

○朴泰權委員 거기 당시에 모였던 學生規模나 또는 學生들이나 또는 市民들이 어느정도의 數字 정도의 모임이 示威에 가담했었읍니까?

○證人 金宗培 空輸部隊들이 점심 먹고 午後에 市內에 투입됐었기 때문에 그때 數字는 그렇게 많질 않았읍니다. 한 1·2千名 정도가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朴泰權委員 市內에 모였을 때 이미 市內 요소 요소에 陸本에 보관된 文書에 의할 것같으면 그당시 光州市內에 36個 사거리에 空輸部隊를 배치했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오거든요? 그당시 證人이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지점에 示威鎭壓하는 戒嚴軍들이 그렇게 배치하고 있었읍니까?

○證人 金宗培 예. 그랬었읍니다.

○朴泰權委員 그런데 그 部隊가 空輸部隊라는 것이 틀림없읍니까?

○證人 金宗培 예.

○朴泰權委員 空輸部隊의 복장은 어땠었읍니까? 복장과 鎭壓하는 戒嚴軍의 무장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목격한 대로 생생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證人 金宗培 空輸部隊의 평상시 복장인 얼룩무늬옷을 입었고 그리고 머리에는 防石網을 쓰고 있었읍니다. 그리고 총은 뒤로 메고서 오른 손에는 鎭壓棒을 길다란 鎭壓棒을 하나씩 들고 있었읍니다.

○朴泰權委員 그런데 평소 示威鎭壓때는 警察이 출동해가지고 18日 이전까지는 그렇게 많은 지점에 투입된 일도 없었고 示威隊가 있는 앞에서 그저 示威를 鎭壓하는 정도였을텐데 이렇게 空輸部隊가 많이 투입된 것을 보고 證人은 어떤 생각을 했읍니까? 또 그당시 光州市民들은 어떤 생각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證人 金宗培 저는 광장히 불길했읍니다. 空輸部隊들이 와가지고 鎭壓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있었던 學生示威에 대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온듯한 인상이었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市內에 있는 다방이라든가 음식점에 있는 소위 學生으로 보이는 젊은 사람들을 무조건 잡아끌어내 가지고 鎭壓棒으로 때리고 그랬읍니다.

○朴泰權委員 그러니까 證人께서 목격한 것은 상당히 무자비한 구타등 강압적인 鎭壓이었었고 그 鎭壓方式이 보통때의 示威鎭壓이 아닌 어떤 특수한 임무를 띤 것처럼 느꼈다 이 말씀이지요?

○證人 金宗培 예. 그렇습니다.

○朴泰權委員 그런데 그당시 光州市民들이 또는 學生들이 그 당시의 戒嚴擴大措置에 따른 示威에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해야 할 원인은 없었지요?

○證人 金宗培 그렇습니다. 예.

○朴泰權委員 證人 그렇다면 空輸部隊가 그렇게 강경하게 鎭壓한 이유는 조금전에 證人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다음날 19日 18日은 그런 정도로서 해산이 됐고 19日은 전날 空輸部隊들이 많은 지점에서 示威鎭壓을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면서 위협을 주고 공포를 주면서 했기 때문에 19日은 이제 더 많은 市民學生들이 모이고 심지어는 高等學校 學生들까지도 그 示威에 가담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습니까?

○證人 金宗培 예. 그렇습니다.

○朴泰權委員 本委員이 조사한 資料 戰敎司 戰鬪詳報와 陸本에 보관한 「넘버」13－3권 作戰命令 제1권 등에 의할 것같으면 19日의 示威鎭壓도 空輸部隊등 많은 示威部隊 戒嚴軍들이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른바 이 部隊들이 「탱크」나 裝甲車 등을 동원하고 심지어 火焰放射器까지 사용하는 등 아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강력한 武力을 행사하는 등 이런 등으로 나타났다고 모든 資料에도 있고 그런데 證人이 보았을 때 19日에 있었던 것이 이런 상황이었었읍니까?

○證人 金宗培 19日은 18日 空輸部隊의 무자비한 過剩鎭壓때문에 全市民들이 그것을 분노했읍니다.

그래서 19日은 錦南路와 忠壯路와 光州의 큰 道路에는 光州市民들이 거의 다 나올 정도로 많이 나와 있었읍니다.

그리고 空輸部隊들은 「탱크」를 앞세우고 武力示威를 했었읍니다.

○朴泰權委員 그런데 그 당시의 19日의 錦南路등 驛前 道廳앞등 많은 곳에 示威에 가담한 市民 學生들이 모였었는데 대략 어느정도의 규모로 보십니까? 몇 萬 정도…

○證人 金宗培 19日은 상당한 全市民的인 공

감대가 이루어져 가지고 많은 市民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光州의 「메인 스트리트」가 錦南路인데 錦南路를 가득 채우고 新驛쪽이나 그리고 東明路쪽 이쪽을 전부 가득 채웠읍니다. 그래서 저는 3·40萬 정도는 되리라고 봅니다.

○朴泰權委員 3·40萬名이라면 그 당시 光州市의 규모로 보아서 거의가 가담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군요?

○證人 金宗培 예. 그렇습니다.

○朴泰權委員 20日에는 空輸部隊의 잔인한 만행에 의해서 분노를 느낀 全 光州市民과 인근 全南道民이 합세를 했읍니다.

그래서 지금 證人이 얘기한 대로 數拾萬의 人波가 거리로 뛰어 나와서 大規模 示威가 벌어졌는데 20日이 가장 많이 모였었겠지요?

○證人 金宗培 날이 갈수록 많았읍니다.

○朴泰權委員 예. 證人은 그토록 많은 光州市民과 全南道民의 示威가 戒嚴當局의 발표대로 少數 暴徒나 또는 不純分子에 의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金宗培 空輸部隊의 무자비한 만행을 보고서 全市民이 참여하다시피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暴徒가 아니고 義로운 투쟁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朴泰權委員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마는 證人께서 20日 그렇게 數拾萬의… 19日도 그랬고 20日이 최대의 示威人波가 모였었는데 光州의 民主抗爭의 절정이 바로 20日 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끔 많은 규모의 示威로 확산된 이유가 좀더… 證人으로서 목격하고 느끼고 또 市民들 또는 學生들과 對話해서 지금 남아 있는 기억을 더듬어서라도 좀더 상세한 목격담을 좀 한번 소상히 말씀해 보시지요.

○證人 金宗培 光州抗爭의 원인을 어떤 地域感情의 유발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流言蜚語에 의해서 光州抗爭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空輸部隊의 잔인한 蠻行 때문에 저는 光州抗爭의 원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2·12事態로 軍權을 장악한 몇 몇 少數軍人들이 政權을 奪取하기 위해서 5·17 非常戒嚴擴大를 해 가지고 光州에서 반발이 심하니까 光州를 무차별 짓밟아버린 사건이라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에 저는 굉장히 분노했던 것이 전옥주라는 女子가 「리어카」에다가 두 具의 屍體를 싣고서 太極旗를 덮어가지고 錦南路를 행진하면서 觀光「호텔」앞에까지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마이크」를 대고 市民들에게 홍보를 하고 갔었읍니다. 저는 그 屍體를 보니까 눈깔이 하나 파져 있었읍니다. 大劍으로…

그리고 한 사람은 가슴과 배 있는 부분이 여러군데가 亂刺되어 있었읍니다. 그것을 보고서 光州市民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朴泰權委員 예. 알겠읍니다. 證人의 證言을 요약해 본다면 5月18日부터 20日까지 그 사이에 非常戒嚴 全國擴大 또는 抵抗權을 행사한 小規模 示威가 3日만에 全 光州市民과 全羅道民에게까지 여파를 주어서 大規模의 民衆民主運動으로 발전되었다는 말씀으로 저는 알겠읍니다.

더불어 이것은 전적으로 空輸部隊의 事前浸透와 또 악독한 폭행 또는 잔인 무도한 행위에 의해서 자행된 무자비한 鎭壓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證人 金宗培 예.

○朴泰權委員 證人! 여기서 우리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戒嚴軍이 이 暴力的 鎭壓行爲를 自發的으로 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鎭壓軍의 指揮官이나 鎭壓軍에게 命令할 수 있는 사람에 의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것을 잘 좀 答辯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證人 金宗培 저도 軍隊를 갔다 왔기 때문에 軍人이라는 것은 命令이 없이 움직일 수가 없읍니다. 당연히 命令에 의해서 움직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朴泰權委員 그러면 그 상황까지 오도록 示威를 鎭壓한 部隊는 空輸部隊 말고 또 있었읍니까?

○證人 金宗培 제가 알기로는 空輸部隊만 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朴泰權委員 예. 그렇다면 지금 證人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示威鎭壓은 거기에 나와 있는 戒嚴軍의 自發的인 行爲가 아니고 틀림없

이 이 部隊의 指揮官으로부터 命令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證言해 주셨고 그 部隊는 空輸部隊라고 얘기를 했읍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느 部隊든지 軍의 服務規律 등 여러 가지로 보아서 그러한 命令은 示威를 鎭壓하는 小隊나 分隊나 大隊나 中隊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그 뒤에서 누구인가가 이 示威鎭壓에 强權力이나 또는 發砲命令이나 어떤 특수한 命令을 내리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때 이 空輸部隊의 指揮官은 누구였읍니까?

○證人 金宗培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투입되었었던 空輸部隊가 7空輸하고 3空輸하고 11空輸旅團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朴泰權委員 그 旅團長을 다 기억하십니까?

○證人 金宗培 제가 알고 있읍니다.

○朴泰權委員 그럼 이 자리에서 한 번 밝혀 보시지요.

○證人 金宗培 崔 雄씨하고 崔世昌씨하고 신우식씨입니다.

그리고 空輸特戰司令官은 鄭鎬溶씨라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朴泰權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5月21日에 있었던 상황을 몇 가지 訊問하고자 합니다.

證人께서 그 당시 示威群衆에 대한 戒嚴軍의 最初發砲는 언제 어디서 일어났으며 누가 피해를 보았는지 목격한 것이 있으면 목격한 대로 혹시 그 당시의 정확한 상황을 들어서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證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金宗培 光州抗爭은 굉장히 방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부 다 볼 수가 없었읍니다. 제가 본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19日 光州高等學校하고 鷄林派出所 사이에 있는 東元禮式場 앞에서 空輸部隊들이 市民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發砲해가지고 그 때 朝大附高生이 死亡한 줄로 알고있고 그것은 제가 직접 보지를 못했읍니다.

그리고 20日 저녁 10時頃에 新驛앞에서 격전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때 火焰放射器도 사용하고 그래서 상당한 市民들이 그 때 死亡한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는 光州抗爭의 소위 集團發砲가 이루어진 것을 21日 午後 1時半쯤에 道廳앞에서 集團發砲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朴泰權委員 지금 證人께서 證言해 준대로 21日 1時半에 集團發砲가 있기 전에도 銃聲고 또 戒嚴司令官 李熺性의 이름으로 自衛權發動의 警告傳單이 뿌려졌읍니다.

○證人 金宗培 예.

○朴泰權委員 그러면 本委員이 조사한 資料에 보면 충정作戰 No.13－4卷 또 戰鬪詳報 36「페이지」에 의할 것 같으면은 21日 저녁 9時에 이 自衛權發動이 됐읍니다.

즉 뭐냐하면 내용은 "接近하면 下腹部를 指向 發砲하라"는 用語가 命令指示로 떨어지고 있읍니다. 이 自衛權發動指示가 下達되었고 또 戒嚴司令官 李熺性의 이름으로 自衛權發動의 警告傳單이 뿌려졌읍니다.

그때 당시에 光州市內에 이런 것을 알리는 어떤 宣撫活動같은 것은 있었읍니까? 전연 없었지요?

○證人 金宗培 예.

○朴泰權委員 그러니까 이러한 命令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벌써 發砲가 됐었고 또 이런 것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21日 밤 9時에 이러한 發砲命令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證人 金宗培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委員長 文東煥 朴委員! 시간을 지켜 주셔야겠읍니다.

○朴泰權委員 委員長님! 제가 양해를 받았읍니다.

○委員長 文東煥 그러면 저한테 연락이 와야지 제가 알지요. 저녁이 늦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지켜주셔야 되겠어요.

○朴泰權委員 예. 제가 앞에서 밝힌 대로 이 부분은 제가 21日까지의 상황만을 짧은 시간이지만 效果的으로 듣도록 하겠읍니다.

○證人 金宗培 예.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때 당시에 분명히 軍指揮體系는 2元化되

어 있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光州에 戰鬪敎育司令部와 31師 鄕土師團이 있읍니다.

그런데 그 鄕土師團이나 戰鬪敎育司令部를 놓아 두고서 空輸部隊가 投入됐다는 그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朴泰權委員 예. 알겠읍니다.

그러면 21日 午後 1時30分의 道廳앞 發砲命令은 戒嚴司令部의 指揮系統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렇지요?

○證人 金宗培 예. 그렇습니다.

○朴泰權委員 그리고 역시 18日 聽聞會에서 당시 李熺性戒嚴司令官이 末段部隊에서 決定한 것이라고 證言했었는데 그 證言도 잘못된 것이라고 보아야 되겠군요?

○證人 金宗培 몇 個 中隊兵力이 있었기 때문에 遇發的으로 命令이 없이 절대 發砲할 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

○朴泰權委員 그러면 그 당시에 2元化되어 있었다 또 그 당시에 光州에 戒嚴軍들이 여러 部隊가 들어와 있었다는데 證人이 생각할 때 최초의 發砲部隊는 어느 部隊로 보십니까?

○證人 金宗培 空輸部隊라고 보고 있읍니다.

○朴泰權委員 空輸部隊지요?

○證人 金宗培 예.

○朴泰權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예. 수고하셨읍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新民主共和黨의 金文元委員 15分 配當이 되어 있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金文元委員 新民主共和黨의 金文元委員입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직접 訊問으로 들어가겠읍니다. 80年5月19日 朝鮮大 民主鬪爭委員會 發表文을 제가 읽어 보았읍니다. 거기에 "民主市民은 일어서라"하는 내용으로 당신의 아들 딸들이 죽어가고 있다 하는 발표를 한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5月19日 이전의 상황이 이같이 표현될 정도로 상당히 상황이 위급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때 상황을 잠깐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證人 金宗培 5月19日字면은 이미 5月18日 空輸部隊들이 와가지고 蠻行을 저지른 날입니다.

○金文元委員 證人은 5月21日 午後 1時30分께 全南道廳앞에서 戒嚴軍의 無差別發砲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證人 金宗培 예.

○金文元委員 市民들이 무참하게 이것때문에 쓰러져 가고 있고 아주 상당히 위태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李熺性 당시 戒嚴司令官은 그 당시에 自衛權發動을 5月21日 저녁 9時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尹興禎將軍도 近者에 제가 만나서 확인을 했읍니다. 9時가 정확한데 그렇다면 市民武裝이 먼저냐 또는 自衛權發動이 먼저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게 되어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論爭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證人 金宗培 아!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하겠읍니다.

○金文元委員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시간도 없고…

○證人 金宗培 自衛權問題에 대해서도 저는 그 自衛權發動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읍니다.

그 날은 1時30分이었기 때문에 날씨가 아주 화창해 가지고 굉장히 맑은 날이었읍니다. 그리고 市民들은 武裝을 하고 있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自衛權發動指示라는 것은 거기에 적용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았읍니다. 그리고 분명히 해 둘 것은 제가 이번에 戰鬪詳報를 한번 보았읍니다. 봐 보니까 市民들이 먼저 武裝을 하고서 위협을 해 오기 때문에 發砲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만큼은 제가 꼭 밝혀야 될 것같습니다. 그 날은 절대 市民들은 武裝하지 않았읍니다. 1時30分頃에… 그때 당시에 저는 空砲를 쏜 줄 알았어요. 그 자리에 제가 있었읍니다. 空砲를 쏜 줄 알았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많이 쓰러졌읍니다. 그리고 나서 도저히 맨 손으로는 안 되겠다 라는 판단을 해서 市民들이 武器庫를 奪取해 가지고 武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市民들에게 銃이 나온 것이 午後4時에서 5時사이입니다. 發砲는 이미 1時半에 이루어 졌던 것입니다.

○金文元委員 사실은 그 날 21日이 釋誕日입

니다. 석가모니가 탄생된 그 날에 이같이 서로 發砲를 하고 총알이 나르고 한 날이었읍니다. 證人은 5月27日 戒嚴軍의 道廳鎭壓作戰이 이루어 지기 전에 이에 대한 事前에 警告를 받았거나 또는 情報를 알고 있었읍니까? 만일에 있었다면 道廳안에 있던 市民軍의 분위기는 어땠읍니까? 그 당시에 …

○證人 金宗培 누차에 걸쳐서 警告를 해 왔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관철되지 않고 無差別하게 市民들이 殺傷된 狀態內에서 저희들은 武器를 返納할 수가 없었읍니다.

○金文元委員 그랬읍니까?

○證人 金宗培 警告는 받았읍니다.

○金文元委員 예.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일종의 假定이며 또 希望事項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당시에 道廳안에 있던 證人을 포함해 가지고 指揮部가 보다 조금 좀 合理的이고 온건한 路線을 택했다면 그 많은 犧牲者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도 언뜻 본인은 생각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證人의 생각은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물론 포악한 鎭壓에 대한 抵抗感이라는 것은 있었겠지만 …

○證人 金宗培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 때 당시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전부 다 정당한 사항들이었읍니다. 그러나 戒嚴司쪽에서는 전혀 들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서 武器를 返納하고 손을 들고 나갈 수가 없었읍니다.

○金文元委員 서로 충돌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결론이시구먼 …

○證人 金宗培 예.

○金文元委員 證人의 생각으로는 당시 光州抗爭으로 死亡者가 몇 名쯤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제가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이 死亡者數字가 계속 말썽이 나고 있읍니다마는 現政權이 이 數字를 자꾸 줄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數字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려면 現政權에 어떤 「데미지」를 준다거나 손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數字를 파악함으로써 犧牲遺族에 대한 한 사람의 빠짐없는 補償과 말하자면 따뜻함을 던져 주어야 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 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모든 情報가 차단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 당시 光州抗爭에서 활약을 했던 證人의 생각으로는 과연 대충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을 좀 證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

○證人 金宗培 정말 좋으신 質問을 해주셨읍니다. 저도 어느 누구보다도 그때 당시에 死亡했던 사람들이 전부 밝혀지고 數字가 될 수 있으면 적었으면 좋겠읍니다. 제가 또 마침 그때 葬禮委員長까지 맡아가지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全南大學校附屬病院이나 赤十字病院이나 또는 基督病院에 있는 屍體들을 道廳에다 전부 모았읍니다. 그래가지고 家族들이 확인되는 사람은 상무관에 저희들이 安置를 시켰어요.

그런데 특히 중요한 事項은 空輸部隊들이 21日 市外廓으로 철수했기때문에 光州를 완전히 포위를 하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21日 이후에는 全南 全地域에서 交戰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光州市外廓에서 交戰해 가지고 死亡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관리를 못했읍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23·24日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和順넘어가는 고개에서 한 15·16名 정도가 集團으로 射殺되어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 보고 屍體를 인수해 가라는 電話를 받았읍니다.

그런데 空輸部隊들이 거기서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屍體를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27日 마지막날까지 그 屍體를 가져오지 못했읍니다.

그럼 그런 屍體들이 결국에는 軍人들이 관리하고 있는 地域에 있는 屍體들은 저희들이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저는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숫자가 2,000名이고 300名이고 500名이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보다는 國民의 軍隊가 특히 國民의 生命과 財産을 지켜야할 國民의 軍隊가 그들의 主人인 國民을 學살했다는데에 나는 문제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 숫자도 중요하지만 나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정말 이번에 光州市廳에서 行不者들 申告를 받았는데 115名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死亡者는 13名이라고

그러는데 그 숫자들이 지금 어디에 암매장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金文元委員 알겠읍니다. 그래서 저도 光州犧牲者에 대한 名譽回復이나 補償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유야 어떻든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治癒方法에 대해서 어떤 方法으로 이것이 名譽回復이 되고 補償되었으면 하느냐 하는 現地에서 활약을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證人 金宗培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당연히 먼저 眞相이 밝혀지고나서 그 당시의 被害者들이라든가 또 光州市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을 특히 遺家族들 負傷者들 그당시 구속 당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被害補償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金文元委員 그럽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고자 하는 것은 政府에서 死亡者 申告를 얼마전에 받고있지 않았읍니까?

그런데 아직도 申告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申告를 하지않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參考的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전에 그당시 周永福國防部長官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申告를 하지 않고있는 犧牲者들 대부분이 떠돌이 독신자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것이 申告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보시고 周前國防部長官의 答辯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간단하게 짧게 對答해 주세요.

○證人 金宗培 저는 그렇게 보고있읍니다.

그때 당시에 鶴洞에 있는 고아원 같은 것들이 몇 개가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사람들은 고아원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자들이 없기 때문에 신고할 사람들이 나는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 특히 外地에서 와가지고 學生으로 와가지고 특히 유학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職場을 光州에 와서 특히 食堂從業員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企業體에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外地에서 온 사람들은 申告가 상당한 부분들이 지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저는……

○金文元委員 그렇습니까?

이것은 제가 좀 특수한 質問을 드리겠읍니다마는 東亞日報 28日字 新聞에 사실 光州抗爭의 鎭壓으로 政權을 잡은 사람입니다.

全氏에 대해서 54%가 赦免을 원한다. 그리고 反對는 34%다 이랬읍니다. 그래 本人의 생각은 뭐냐하면 그분에 대한 문제는 眞相부터 명확히 이것을 해결…… 아니 調査를 밝혀놓고 그 結果에 따라서 國民에게 寬容이나 容恕를 요청하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보고 있읍니다.

證人으로서 全斗煥前大統領에 대한 현재의 생각 被害者를 자처하는 證人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까?

○證人 金宗培 굉장히 어려운 質問인 것 같습니다.

저 個人的생각으로는 그당시 살아있는 사람으로서는 대단한 被害者입니다. 저도 死刑宣告도 받고 懲役도 오래 살았읍니다.

그러나 제 個人的 생각으로는 정말로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또 당연히 여기에 나와가지고 證言臺에 나와서 사실을 사실대로 糾明하고 歷史와 民族 앞에 서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나온다면 저는 용서하고 싶습니다. 個人的으로…

그러나 光州에는 용서할 수 없는 많은 被害者들이 있읍니다. 그 당시에 負傷者들이라든가 死亡者들이 많이 있읍니다. 당연히 被害當事者들과 화해도 이루어져야 되고 당연히 사실을 糾明하고 나서… 大統領이 예외일 수가 없읍니다.

民族精氣를 바로 잡는 차원에서 우리의 과거의 歷史를 보면은 日帝의 殘滓를 처리하기 위해서 反民特委를 만들었는데 해체돼 가지고 처리 못하고 歷史的 失手를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성하고 있읍니다.

○金文元委員 그 심정을 알겠읍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건 시인이냐 아니냐 한 말씀만 해주면 되겠읍니다.

朝鮮大民主鬪委에서 발표한 長文의 宣言文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읍니다. 거기에 이런게 나옵니다.

서울에서 급파된 3,000餘名의 空輸特戰團들

은 大劍을 빼어들고 미친 망나니처럼 무우를 자르듯이 닥치는대로 찔러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시체들은 「트럭」에 싣고… 이런 얘기 男學生에게 돌을 날라다 주었다는 女學生을 대낮에 시민이 보는 앞에서 大劍으로 난자하였고 하는 대목이 있읍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시인을 하십니까 부인을 하십니까?

○證人 金宗培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金文元委員 民族과 歷史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인이냐 부인이냐 하는 것을 갖나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金宗培 死亡者중에서도 大劍에 찔려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읍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읍니다.

○金文元委員 알겠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묻겠읍니다.

證人은 얼마전 新聞記者會見에서 民主黨 入黨에 대한 이유를 밝힌 적이 있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金宗培 글쎄! 여기에서 그 대답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마는 質問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제가 光州抗爭에 관여되어 있고 湖南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平民黨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金委員님께서 質問하신 것도 그것때문에 質問하신 줄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慶尙道 사람들은 당연히 民主黨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思考 자체를 저는 깨고 싶었읍니다.

그래서 저는 民主黨에 들어간…

○金文元委員 地域感情 解消를 위해서 대단히 좋은 일을 하셨다는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수고하셨읍니다.

○委員長 文東煥 다음에는 民主正義黨의 安榮基委員… 20분으로 되어 있읍니다.

○安榮基委員 時間關係上 質問으로 바로 들어가겠읍니다.

證人은 88年… 今年입니다. 3月 月刊朝鮮에 내가 겪은 80年5月의光州 이러한 「인터뷰」 記事를 보게 되면 그 女高生이 직접 死亡하는 것을 보고 총을 들게 됐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맞습니까?

○證人 金宗培 예.

○安榮基委員 그런데 사실상 먼저 搜査部分에서는 이러한 얘기를 한 일이 없읍니다. 어느 것이 진실입니까?

○證人 金宗培 제가 搜査記錄에도 진술한 내용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 그때 당시…

○安榮基委員 그건 全南大學病院에서 나이 많은 분하고 둘이 죽은 걸 보고 또 光州에 무슨 湖南의 地域感情 流言蜚語 보고 이렇게 의분해서 참여했다 이렇게 搜査記錄이 되어 있지요?

○證人 金宗培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을 搜査記錄에다가 쓸 필요가 없었읍니다.

○安榮基委員 그 다음 제 얘기를 또 하겠읍니다.

證人은 조금 전에 21日 1時경에 道廳 앞에서 發砲가 있었다고 그랬지요?

○證人 金宗培 예.

○安榮基委員 그 전에 사실상 무기가 被奪된 것을 알고 있읍니까?

19日 3時 15分에 「카빈」 1정이 CBS放送局 占據때 없어졌고 그 다음날 20日 23時입니다. 光州稅務署 別館 武器庫에서 17정의 「카빈」이 없어졌읍니다.

○證人 金宗培 저도 알고 있읍니다.

○安榮基委員 예. 알고 있으면 됐읍니다.

그 다음 얘기를 드리겠읍니다. 그때 몇時경에 證人이 武裝을 시작했읍니까?

○證人 金宗培 저희들이 21日…

○安榮基委員 아니 證人 중심으로…

○證人 金宗培 저는 그날 저녁에 21日 저녁에 무장을 했읍니다.

○安榮基委員 그때는 누구나 총을 구할 수 있었읍니까?

○證人 金宗培 총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安榮基委員 아무나 다 들 수가 있었어요? 원하면은…

○證人 金宗培 상당한 총들이 많이 나와 있었읍니다.

○安榮基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 얘기를 드리겠읍니다. 證人 현재 黨籍이 있으시지요?

○證人 金宗培 있읍니다.

○安榮基委員 어디입니까?

○證人 金宗培 統一民主黨에 있읍니다.

○安榮基委員 黨職은 뭡니까? 지금…

○證人 金宗培 黨 政務委員입니다.

○安榮基委員 아! 그리고 어디 地區黨委員長을 맡으신 데가 있지요?

○證人 金宗培 예.

○安榮基委員 어디입니까?

○證人 金宗培 九老區 乙地區黨입니다.

○安榮基委員 아! 그러세요.

학교때 「레오라이온스 클럽」을 組織했다는데 사실입니까?

○證人 金宗培 그렇습니다.

○安榮基委員 倫理綱領을 알 수 있읍니까?

○證人 金宗培 하도 오래돼서…

○安榮基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 얘기합시다. 80年5月22日 6時가 됩니다. 김창길씨 정혜민씨를 압니까?

○證人 金宗培 예. 압니다.

○安榮基委員 이 분들하고 全南大學 朝鮮大學 大學生 20名이 모여서 光州民主化事態 學生收拾委員會를 구성해서 김창길을 委員長으로 證人은 葬禮擔當副委員長으로 선출이 됐는데 사실입니까?

○證人 金宗培 예. 그렇습니다.

○安榮基委員 사실상 김창길委員長… 證人이 참여했던 收拾委員會는 상당히 穩健的으로 建設的으로 光州民主化事態를 早期에 收拾할려는 이러한 의도가 보였읍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 보겠읍니다. 本委員이…

김창길委員長이… 그 收拾委員會 委員들이 戒嚴分所하고 戒嚴軍하고 합의한 사항이 있읍니다. 또 요구한 사항이 있읍니다. 또 戒嚴分所에서 대답한 것을 제가 읽어 보겠읍니다.

첫번째 「戒嚴軍의 市街進入은 一切禁止하라」 여기에 대해서 戒嚴軍은 市民들이 먼저 발포하지 않는 한 진입이나 사전 발포는 하지 않겠다. 또한 지금 시내에는 한 名의 戒嚴軍도 없다. 그게 23日 얘기입니다.

두번째 「5·18 空輸部隊의 지나친 鎭壓을 인정하라」 공수부대에서 역시 현장설명을 듣고보니 과잉진압을 시인한다.

세번째 「連行者를 석방하라」 여기에 대해서는 連行者 927名중 79名을 제외하고 모두 석방했으며 또 收拾對策委員會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34名도 어제 석방했다.

또 다음 死亡 負傷者의 補償등 치료요구 사항에 대해서 補償은 물론 對策을 세우고 있으며 철저한 치료를 하고 있다.

그 다음 放送再開 및 事實報道를 촉구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地域放送이 속히 회복되는대로 事實報道하도록 힘쓰겠다.

또 여섯째는 「刺戟的인 어휘사용을 금지하라」예를 들면 폭도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순수한 市民을 폭도라 함이 아니고 악용하는 者를 말하며 上部에 부드러운 어휘를 사용하도록 했다.

또 그 다음 「市外通行路를 通行路를 通路를 터주라」 民間人은 출입을 할 수 있되 손을 흔들어 신호를 보내고 보호해 주며 단 자동차나 무기휴대자는 안 되겠다.

그 다음 「收拾後 處罰禁止를 해라」 이 얘기에 대해서도 事態收拾後에 絶對的으로 보복을 않겠고 軍 指揮官과 對策委員會 명예를 걸고 약속한다는 얘기를 했읍니다.

이 중에 하나 本委員이 알기에 안된 것은 證人이 요구한 市民葬에 대한 것을 대답을 하지 못했읍니다. 그런데 이 여덟 가지 결국 요구하는 것의 90% 이상을 들어 줬기 때문에 김창길委員長이나 적지 않은 光州市民들이 여기에 대해서 호응을 했는데 유독 증인을 중심한 몇 사람이 그 根本的인 문제 해결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證人이 그 얘기를 뺐읍니다마는 證人은 根本 해결중에 반드시 金大中總裁를 석방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또 戒嚴解除 물론 崔圭夏大統領 退陣 이러한 얘기가 들어 있읍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무기를 반납할 수 없고 계속해서 무장투쟁을 해결될 때까지 하겠다.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입니까? 주장을 했는데…

○證人 金宗培 예. 제가 그런 주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김창길씨하고 저 하고는 상당한 갈등이나 異見들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방금 해결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단 10%도 해결이 안 되었읍니다. 한 가지 것도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었읍니다. 그 때

당시에는 총 100정을 가지고 가가지고 34名을 석방시켜 왔는데 嫌疑가 없는 사람들만 눈속임으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들어줄 수가 없었읍니다.

○安榮基委員 알겠읍니다.

그 다음 얘기를 하겠읍니다. 光州民主化運動 과정중에 光州鬪士會報라는 地下油印物을 인쇄해서 1號부터 8號까지 證人이 發刊해서 配布한 사실이 있지요?

○證人 金宗培 제가 그것은 發刊하지 않았읍니다.

○安榮基委員 그러면 代辯人 윤상원이가 했읍니까?

○證人 金宗培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安榮基委員 本人은 모르고 있읍니까?

○證人 金宗培 예.

○安榮基委員 그것을 본 일은 있읍니까?

○證人 金宗培 그때 경황이 없어가지고 보지 못했읍니다.

○安榮基委員 이 내용중에 5月23日 24日 25日 궐기대회를 보게 되면 투사대회 하고 궐기대회를 보게 되면 투쟁을 항쟁을 계속하게 되면 外國의 지원이 있을 것이다. 두번째는 美7함대가 釜山에 정박중이면서 全政權을 견제하고 있다 세번째는 美國의 經濟 원조가 단절되어서 4·19처럼 現政權은 저절로 손들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한 것이 전부 나와 있는데 알고 있읍니까?

○證人 金宗培 당연히 不法의 政權이었기 때문에…

○安榮基委員 이것은 10日間의 취재수첩 東亞日報의 김영택記者가 쓴 데도 나와 있읍니다.

그 다음 얘기하겠읍니다. 젊은 學生인데 自國內의 문제를 그렇게 외세 의존적으로해서 되겠읍니까?

○證人 金宗培 그런데 그때 당시에 美7함대가 와있었다는 정도는 소문이 나있었지만 저희들은 확인할 수도 없었읍니다.

○安榮基委員 그 다음 光州民主化運動에 美國이 개입을 하고 韓美司가 깊이 개입했다고 野黨議員들이 또 일부 在野에서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光州에서 주장한 그 내용하고 이것은 서로 상치되 얘기지요? 소문의 얘기는 자꾸 하면 안됩니다. 證人이 젊고 學生이고 한데…

○證人 金宗培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때 당시에는 美7함대가 釜山에 정박하면서 民主化 鬪爭을 하고 있는 많은 市民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온 줄로 알았읍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우리 民主化 運動을 하는 사람을 도움을 주기위해서 美國의 7함대가 온 것이 아니라 진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에 대해서 美國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安榮基委員 알겠읍니다.

그다음 證人은 수일전에 그자리 證人席에서 金大中總裁가 거기 계시면서 美國 망명시절에 韓國에 民主化를 앞당기기 위해서 韓國에 經濟 원조를 단절하도록 압력을 촉구한 이러한 사실을 시인했읍니다.

그렇다면 證人의 그러한 思考方式은 金總裁의 그러한 思考方式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證人 金宗培 그것은 金大中總裁의 생각이고 제 생각일 수는 없읍니다.

○安榮基委員 다음 學生收拾委員會 김창길委員長 外의 여러 사람은 그 事態收拾方法으로 첫번째 기관총 2정을 비롯해서 540정의 소총과 29萬 발의 실탄 또 수류탄 다수 다시 장갑차를 비롯한 400台 가까운 車 이러한 것으로 무장한 시위대가 光州에 있는 한 많은 희생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戒嚴軍이 들어오지 않도록 어느 경우로도 막아야 되겠다 또 두번째는 무기를 빨리 수거해서 戒嚴軍에 반납하고 平和的으로 대화로 해결해야 되겠다 세번째는 어떠한 政治的이고 이념문제 감정문제를 떠나서 일체 배척하고 市民의 유혈을 방지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김창길委員長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副委員長인 證人의 근본적인… 전에 얘기한 金大中總裁釋放서부터 얘기입니다.

해결전에는 무기 반납을 거부하고 무장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입니까?

○證人 金宗培 예. 사실입니다. 그리고 金大中總裁에 대해서 그 당시에 不法으로 연행했기 때문에…

○安榮基委員 알겠읍니다.

그다음 두번째 일단 收拾委員會에 참여해서 김창길委員長을 축출하고 收拾委員會의 「헤게모니」를 證人이 쥐고 그 시위가 光州를 비롯해서 全南의 20個 市·郡으로 확산되어서 無政府 상태가 된 그러한 것을 기회로 本人이 계속 무기 반납을 거부하고 무장투쟁을 할 이러한 의사는 아니었나요?

○證人 金宗培 맞습니다. 저는 그 때 당시에 저희들이 要求한 사항이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持續的인 투쟁을 하고 싶었읍니다.

○安榮基委員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證人은 윤계원 정상용 허규정씨를 아시죠? 이러한 분들하고 이 무기반납을 주장하는 김창길委員長을 윤계원 정상용씨 등과 사전합의해서 강제축출하고 證人은 委員長을 맡고 또 윤계원을 大辯人으로 하고 허규원 정상용으로 內外務 副委員長을 맡고 또 그 외에 이상의 사람들로 計劃部長 民願部長 狀況室長 補給部長 弘報部長을 任命하고 學生收拾委員會를 완전히 장악하였다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여기 5月25日 9時가 됩니다 저녁…

○證人 金宗培 그 때 당시에 김창길이 하고 제가 상당히 異見이 많았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었읍니다. 그리고 市民의 의사에 反하는 行動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같이 할 수가 없었고 民主的 의식을 갖고 있는 青年들과 學生들을 끌어들여서 長期的 투쟁을 하기 위해서 再組織을 했읍니다. 그것이 市民學生鬪爭委員會입니다.

○安榮基委員 알겠읍니다. 5月26日 午後2時30分입니다. 기동타격대장 윤성노 기억납니까?

○證人 金宗培 예.

○安榮基委員 부대장 이재호를 任命해서 1組에 6名씩 13個組를 편성해서 탈취한 찝차 한 台 무전기 하나 「카빈」총 하나 실탄 다수를 주어서 기동타격대로 해서 市內 순찰을 시켰다는데 사실입니까?

○證人 金宗培 예. 사실입니다.

○安榮基委員 알겠읍니다. 다음 5月24日 全南道廳 궐기大會에서는 死亡 확인 미확인 600名 중경상수 2,000名 그 다음 25日 午後 3時입니다. 市民궐기大會에서 나온 것은 시체 169구 신원파악불능 49구 충장로 지하도에 집단 발견된 시체 23구등 239구입니다. 그리고 重患者520 經傷者2,170 신고 행방불명된 2,000名 이러한 發表를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根據가 나왔다고 얘기가 됩니까?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바로 證人이 장례담당 副委員長이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 봅니다.

○證人 金宗培 그것은 아까 共和黨 金文元委員이 물으셨을 때 제가 충분히 答辯했읍니다.

○安榮基委員 그 다음 오늘 한겨레新聞 「인터뷰」에서 장례담당 副委員長을 했기 때문에 그 때 확인된 것은 政府가 發表한 數字와 같다 그런데 야외에서 사살된 암매장한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추측 얘기한 것을 봤읍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이제 光州民主化運動은 眞相도 밝혀야 되겠지만 盧泰愚大統領이 11月26日 정확히 名譽와 權利를 회복하고 補償을 하겠다는 얘기를 決定을 했읍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收拾段階로 모두가 의견을 합쳐야 될 이러한 때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때 사실상 모든 總首役割을 한 證人으로서 그러한 것이있다 하면 정확히 申告를 하고 찾아내는데 협조할 용의가 있읍니까? 없읍니까?

○證人 金宗培 저도 물론 그 때 당시에 많은 희생자들이 아직 누울자리를 찾지 못하고 구천을 헤매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암매장되어 있는 사람들을 찾고 싶습니다.

○安榮基委員 다음 그 戒嚴軍 市內進入에 대비해서 계림國民學校를 비롯해서 유동삼거리 德立 전일「빌딩」에 기관총 전대병원에 기관총 鶴洞 池元洞 鶴雲洞 또 道廳주위에 數百名을 무장해서 배치하고 수류탄과 실탄을 주어서 배치를 시켰읍니다. 5月24日 3時30分 戒嚴軍이 道廳에 進入했을 때 證人일행 5名은 체포되었지요?

○證人 金宗培 그렇습니다.

○安榮基委員 체포된 것입니까 투항한 것입니까?

○證人 金宗培 道廳이 4層까지 되어 있었기 때문에…

○安榮基委員 그것은 알고 있읍니다. 4層에 올라가고…

○證人 金宗培 그래서 저는 2層에 있다가 4層까지 피해 가지고 마지막 10分동안 버티다가 投降했읍니다.

○安榮基委員 이 곳에서 17名이 死亡했다고 政府는 발표했는데 그 때 일부 학생은 150名이라고 얘기한 것도 이러한 책에 나온 것이 있읍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證人 金宗培 저는 그때 당시에 27日 戰鬪를 하고서 잡혀갔기 때문에 그 때 死亡者 數字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 이후로 제가 3年 가까이 懲役을 살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읍니다.

○安榮基委員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때 그 本人이 投降할 때 證人이 證人의 愛人과 道廳내에 같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까?

○證人 金宗培 사실이 아닙니다.

○安榮基委員 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證人 金宗培 예.

○安榮基委員 光州民主化運動의 最高司令塔으로 끝까지 진두지휘한 證人의 용감성에 대해서는 讚辭를 보냅니다.

그러나 證人의 强硬一邊의 狀況誤判이 없었다면 만약에 이 김창길委員長의 얘기를 들어서 일찌거니 사실상 수습을 했다면 이러한 市民 軍警의 많은 희생자를 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本委員은 해 봅니다.

(文東煥委員長, 辛基夏幹事와 司會交代)

○證人 金宗培 空輸部隊가 안 왔다면 차라리 死亡者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安榮基委員 그 다음 얘기를 드리겠읍니다.

證人은 光州民主化運動時에 金大中總裁釋放을 열렬히 주장을 했읍니다. 당시에 光州民主化運動에 참여했던 中心的인 人物은 모두 金總裁를 中心으로 平民黨에 入黨해서 거의 國會에 登院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證人은 平民黨 公薦을 받았다면 틀림없이 當選이 됐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요」하는 이 있음)

그 다음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證人은 무엇 때문에 金大中總裁를 결별하고 統一民主黨으로 入黨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證人 金宗培 아까 제가 金文元委員이 質問할 때 충분히 答辯을 했읍니다.

○安榮基委員 本委員은 證人의 그 英雄心의 狀況誤判 또 政治指向的인 自己誇示 이러한 行動이 光州民主化運動을 참담한 결과로 誘導하지 않았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政治人化 하기 위해서는 편협한 思考나 성급한 行動은 禁物이라는 것을 끝으로 충고를 하면서 本委員의 訊問을 마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辛基夏 다음은 平和民主黨의 李海瓚委員 訊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定된 시간은 10分입니다.

○李海瓚委員 平民黨의 李海瓚委員입니다.

아주 극히 制限된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 딱 한 가지만 質問하겠읍니다.

證人은 27日 道廳에서 마지막까지 抗爭했던 市民軍委員長이었읍니다. 앞에 安委員의 質問에서도 얘기가 됐읍니다마는 27日 道廳에서 죽은 사람의 數字를 지금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軍人들이 進入을 할 적에 銃擊戰이 어느 정도 벌어졌었읍니까?

○證人 金宗培 3時 한 50分에서 4時사이에 軍人이 進入해 가지고 한 5時쯤에나 銃擊戰이 끝났읍니다.

그래서 한 1時間동안 交戰을 했기 때문에 차후에 나와 가지고 제가 戒嚴司 發表에 의하면 17名 死亡으로 發表를 했는데 저는 충분히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李海瓚委員 예. 光州에서의 그 展開過程 光州市民들이 虐殺당하는 과정에 관한 眞相糾明이 이어서 쭉 있으리라고 봅니다. 矯導所 앞에서도 많이 죽었고 木浦나가는 길목에서도 많이 죽었고 도처에서 많이 죽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지역의 한 지역입니다. 道廳에서의 虐殺이… 당시에 20師團과 3空輸旅團이 道廳進入作戰을 한 것으로 公式文獻에는 나와 있읍니다. 20師團은 朴俊炳少將이었고 3空輸旅團長은 崔世昌准將이었읍니다. 3空輸旅團은 바로 釜馬事態를 鎭壓했던 그런 部隊였읍니다.

그런데 27日作戰에서 이 두 個의 1個師團과 1個旅團의 兵力이 투입될 정도로 대규모의 銃擊戰이 벌어졌는데 政府 發表로는 이 死亡者 數字가 發表文獻에 보면 사실로 되어 있읍니다. 수시로 변하고 있는 것을 本委員이 資料를 檢證하는 과정에서 알았읍니다.

맨 처음에 本 特委에 國防部에서 제출한 20師團 忠正作戰報告라는 文獻에 보면 불과 4名밖에 射殺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었읍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의아해서 지난 釜山에 있는 文書保管創庫 文書保管所에 가서 文書檢證을 해 본 결과 忠正作戰詳報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또 하나가 비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읍니다.

그 文書에는 17名을 射殺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17名중에는 20師團이 射殺한 것이 4名 3空輸旅團이 射殺한 것이 13名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3空輸旅團은 바로 20師團의 作戰統制下에 있었기 때문에 光州事態實態報告(20師團詳報)에 20師團의 作戰에 17名으로 기록된 별도의 충정작전상보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근에 本委員한테 또 하나의 情報가 입수가 되었는데 그 情報에 의하면 30名이 死殺된 것으로 되어 있는 資料가 입수가 되었읍니다. 本委員이 精密檢討를 해서 곧 밝히겠읍니다마는 이 光州事態實態報告(20師團詳報)라고 하는 文件에는 30名이 죽은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光州事態實態報告(20師團詳報)는 本 特委에서 國防部에 거듭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았던 資料입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이 戰鬪詳報를 檢討해 보는 과정에 있는데 그 「차트」가 두 장으로 되어 있읍니다. 道廳안 狀況表가 있고 道廳밖 狀況表가 있는데 여기에서 約 30名이 죽은 것으로 되어있읍니다. 당시 狀況에서 道廳 밖에서도 전투가 있었읍니까?

○證人 金宗培 公園과 그리고 전일「빌딩」저희들이 또 道廳 주변에만 우리 市民들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光州市 全域에다 배치를 했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전투가 있었읍니다.

○李海瓚委員 그러면 本委員이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지난 86年度에 「글라이스틴」이 人權外交政策이라고 하는 책에 한 論文에 보면 이런 句節이 있읍니다. 길지 않은 句節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 드리겠읍니다. 이 文獻은 新東亞에 全譯… 飜譯되어서 轉載되었던 글입니다. 20師團이 光州市를 鎭壓하였을 때에는 그다지 큰 저항을 받지 않아 死傷者가 거의 없었으나 市中心街에 이르자 道廳안에 있던 約 30名의 市民軍이 항복을 거부하여 결국 死殺하고 말았다 이런 文獻을 本委員이 읽어 보고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었읍니다.

그런데 당시 美國大使였던 「글라이스틴」의 證言에 符合하는 光州事態實態報告(20師團詳報)가 최근에 本委員에게 입수가 되었읍니다. 本委員이 바로 이렇게 같은 20師團의 여러가지 文獻이 文獻마다 4名에게 17名에서 30名으로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本 特委에 제출된 國防部가 제출한 資料들의 信憑性이 자꾸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本 特委에서 물론 文書檢證을 다시 하겠읍니다마는 이렇게 나타나는 이른바 死亡者 數字때문에 지금까지 政府가 發表한 死亡者 數字 이런 것을 전혀 믿을 수가 없는 傍證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證人에게 한번 확인을 하려고 물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20師團의 兵力出動에 관해서도 「글라이스틴」 당시 美國大使는 韓國政府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美軍司令官과 함께 상의한 후 점검한 후 요청에 동의했고 그것을 「워싱턴」政府에 즉각 報告했다고 證言하고 있읍니다. 이 점은 「글라이스틴」 당시 美國大使에 대한 證言聽取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때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本委員이 아주 극히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證人에게 한가지만 더 확인하겠읍니다.

당시 葬禮委員長을 겸하고 계셨었지요?

○證人 金宗培 예.

○李海瓚委員 葬禮委員長을 하실 적에 사체를 여러 軀 보셨지요?

○證人 金宗培 예. 저희들이 道廳에다 시체를 모았읍니다. 모아 가지고 그 때 당시에 가족들이 확인된 사람들은 尙武館에 안치시켰읍니다.

그 때 저희들이 시체를 모아놓은 것을 望月洞에 갖다 묻었읍니다.

○李海瓚委員 그 때 시체를 보셨을 때 총상을 입은 시체가 있었을 것이고 또 칼이나 이런 것으로 난자된 시체가 있었을텐데 어떻습니까? 난자된 시체수가 얼마나 됐었읍니까?

○證人 金宗培 戒嚴司에서 發表한 대로 보더

라도 난자되어 가지고 죽은 시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저희들이 實質的으로 그때 당시에 대검에 찔려 가지고 죽은 시체들이 많이 있었읍니다.

○李海瓚委員 그 대검에 찔려 죽고 난사된 시체는 自衛權發動에 의한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시체겠지요?

○證人 金宗培 물론이지요.

○李海瓚委員 自衛權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말하자면 자기 生命이 위험해서 本能的인 방어에 의해서 쐈다라든가 아니면은 軍部隊의 특수한 긴요한 施設의 보호를 위해서 쏘는 경우를 말할텐데 난자하고 칼로 찌르고 때로는 저도 그런 사진을 많이 봤읍니다. 얼굴을 칼로 박박 긁어 놓고 이런 시체사진을 本委員도 많이 봤읍니다.

이런 것을 당시 現地의 입장에서 과연 불가피한 射殺이었다 라고 느끼셨읍니까?

○證人 金宗培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아집니다.

○李海瓚委員 바로 그런 상황에서 證人께서는 그런 軍人의 虐殺에 感情的으로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그래서 市民軍에 참여하게 되신 것가요?

○證人 金宗培 그 때 당시에 空輸部隊의 그 만행을 보고서 총 한자루를 쥐고 있는 것이 내자신에 대한 위로였읍니다.

○李海瓚委員 그 총을 쥐는 것은 軍人들을 꼭 射殺하려고 했던 것인가요 아니면 총을 가짐으로써 市民의 自救的인 보호수단이었었나요?

○證人 金宗培 총을 가지고있는 것이 내 자신에 대한 위로였읍니다.

○李海瓚委員 됐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辛基夏 李海瓚委員 수고하셨읍니다.

다음은 統一民主黨의 張石和委員 訊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委員에게는 18分 配定되겠읍니다.

○張石和委員 統一民主黨의 張石和委員입니다.

證人에게 간단간단히 單問單答式으로 묻겠읍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答辯해주시기 바랍니다.

證人은 光州抗爭現場에서 생생하게 체험을 하신 분이지요?

○證人 金宗培 예. 그렇습니다.

○張石和委員 證人은 영웅심으로 光州抗爭에 참여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證人 金宗培 그렇습니다.

○張石和委員 民主化運動에 積極的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加擔한 것이지요?

○證人 金宗培 예.

○張石和委員 5月22日부터 5月26日 光州市民의 상황을 통해서 光州市民이 폭도가 아니었다고 하는 점을 밝혀 보고자 묻겠읍니다.

戒嚴軍이 일단 물러간 다음에 光州市民들과 學生들이 收拾委員會를 구성한 것이지요?

○證人 金宗培 예.

○張石和委員 당시에 證人이 맡은 역할은 副委員長兼 葬禮委員長입니까?

○證人 金宗培 그렇습니다.

○張石和委員 당시 收拾委員會에서는 어떠한 收拾方案을 마련했읍니까?

○證人 金宗培 그 때 당시에 收拾委에서는 武器回收班을 두어 가지고 武器回收를 하고 治安維持班을 두어서 治安을 담당하게 했었읍니다.

○張石和委員 그러한 收拾方案에 대한 市民의 반응은 어떠했읍니까?

○證人 金宗培 총을 들고 싸워야 될 대상들이 사라지고 없었읍니다.

21日 저녁에 空輸部隊들이 市外廓으로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市民을 괴롭히기 위해서 총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기를 회수하기로 결정했었읍니다. 그래서 市民들이 상당히 호응을 하고 많이 도와 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張石和委員 그래서 武器回收가 순조롭게 이루어졌지요?

○證人 金宗培 순조롭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市外廓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市民들이 무장하고 있는데는 상당한 저항이 있었읍니다. 왜냐하면은 光州市民들 다 죽으란 말이냐 하면서 武器返納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래 가지고 조비오神父라는 분과 몇몇 어른들이 가서 무릎꿇고 무기를 회수하고 그랬었읍니다.

○張石和委員 회수된 무기를 戒嚴當局에 반납하지 않은 이유라도 있읍니까?

○證人 金宗培 무기를 회수하는 데에는 당연

히 原則的으로 전부 회수를 했읍니다. 싸워야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반납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 당시에 市民葬 葬禮式을 치루고 싶었읍니다. 정말 분하게 죽은 市民들을 관이라도 들쳐메고 금남로를 활보하면서 통곡이라도 하고 싶었읍니다.

그래서 市民葬을 치러달라 그때 당시에 拘束된 사람을 전원 석방해 달라 光州市民을 暴徒로 보도한 데 대해서 공개 사과하라 피해 보상은 납득이 가도록 충분히 해달라 이 네가지 사항이 관철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武器返納을 할 수 없다고 그랬읍니다.

그래서 끝까지 武器返納을 안했읍니다.

○張石和委員 당시 治安維持는 누가 했읍니까?

○證人 金宗培 警察들이 이미 도망가고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治安維持班을 두어 가지고 自律的인 治安維持를 했읍니다.

○張石和委員 그 당시에 犯罪가 많이 발생했읍니까?

○證人 金宗培 自律的인 治安維持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큰 강도건 한 건이 없었고 그 당시에 金融機關 하나 털리지 않았읍니다.

○張石和委員 그렇다면은 光州市民들은 戒嚴軍이 물러간 후에 自體的으로 조직한 收拾委員會의 통제에 따라서 秩序回復과 治安維持에 노력하면서 戒嚴當局과의 협상을 통해서 事後收拾을 하려고 했다는 얘기지요?

○證人 金宗培 예. 그렇습니다.

○張石和委員 그 회수한 무기의 반납을 보류하고 있었던 것은 戒嚴軍이 再進入할 경우에 최후의 正當防衛手段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證人 金宗培 예. 그렇습니다.

○張石和委員 5月25日 毒針事件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당시 戒嚴當局은 道廳內에 있던 市民軍들 사이에 不純分者가 섞여있었으며 그 증거로 소위 毒針事件이 일어났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證人은 그 事件의 진상을 그 당시 잘 알고 있읍니까?

○證人 金宗培 예. 그 당시에 25日 9時에 장계범이라는 사람이 毒針을 맞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럼 毒針맞은 사람들 어디 갔느냐고 물어보니까 全南大學校大學病院으로 실려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毒針을 맞고 毒針을 쑤신 사람은 그것을 빨아 주다가 둘이 졸도해 가지고 실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全南大學校大學病院으로 저희 그 당시 機動打擊隊長이었던 윤석루하고 機動打擊隊1隊長이었던 이재춘이라는 친구를 보냈읍니다. 그랬더니 두 사람 다 병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망가고 없었어요. 그래서 수상히 여겨 가지고 醫師한테 물어보니까 毒針맞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조작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서 그때 당시에 記者會見까지 했읍니다.

○張石和委員 장계범이와 정환규는 그 이후에 戒嚴當局의 工作員이었다고 하는 것을 證人이 알았다지요? 장계범이를 뒤에서 어디에서 만났읍니까?

○證人 金宗培 장계범이라는 사람이 저희들이 27日 마지막에 체포되어 가지고 憲兵隊 營倉에 가니까 「마스크」를 쓰고서 道廳에서 일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했다는 것을 찍으면서 서 있었읍니다.

○張石和委員 결국 毒針事件이라고 하는 것은 光州抗爭이 容共分子에 의해서 조종되었다고 조작하기 위해서 戒嚴當局이 꾸며낸 事件이라고 證人은 보는 것이지요?

○證人 金宗培 예. 그렇습니다.

○張石和委員 5月27日 道廳鎭壓狀況에 관해서 몇가지 묻겠읍니다.

5月26日 道廳에 있던 鬪爭委員會는 다음날 새벽에 戒嚴軍이 再進入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읍니까?

○證人 金宗培 예. 알았읍니다.

○張石和委員 그에 對備해서 證人은 要求條件이 관철이 되지 않아서 항복을 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證人 金宗培 그때 당시에 抗爭指導部들을 소집해가지고 저희들이 會議를 했읍니다.

會議를 하면서 과연 우리가 여기서 武器를 버리고 나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 투쟁할 것이냐에 대해서 論議가 있었읍니다.

그때 全員合意로 일부 김창길을 위시한 穩健派들이 戒嚴軍이 들어오니까 다 빠져 나가라고 해가지고 상당한 數字가 빠져나갔읍

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 남아가지고 마지막 光州를 지켜야 된다는 次元에서 투쟁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날 저녁에 武器 지급을 하고 道廳을 지켰읍니다.

○張石和委員 당시에 道廳에 남아 있던 市民은 몇 名이나 되었읍니까?

○證人 金宗培 제가 알기에는 한 300내지 400名 정도 된다고 보았읍니다.

○張石和委員 그정도 市民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 당시 동원된 戒嚴軍側의 兵力은 20師團 31師團 戰教司 3空輸旅團 7空輸旅團 11空輸旅團등 2萬名 가량이었다는 것이 戰鬪詳報에서 밝혀졌읍니다.

이로 보건대 戒嚴軍側의 鎭壓作戰은 光州抗爭의 초기와 같이 過剩鎭壓으로 보는데 그렇습니까?

○證人 金宗培 저는 過剩鎭壓이 아니라 殺戮作戰으로 보고 있읍니다.

○張石和委員 고의로 殺戮作戰을 감행한 것이다.

○證人 金宗培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투항을 하고 손을 들고 나온 사람까지도 총으로 쏘아버렸읍니다. 射殺했읍니다. 그것은 殺戮作戰입니다.

○張石和委員 道廳 鎭壓過程에서 戒嚴軍側이 먼저 發砲했지요?

○證人 金宗培 그야 당연하지요.

○張石和委員 예. 그 당시 道廳鎭壓過程에서 몇名이나 체포되었읍니까?

○證人 金宗培 제가 알기로는 한 300…… 제가 확실한 數字를 잘 모르겠읍니다.

○張石和委員 예. 체포 당한 사람들에게 戒嚴軍은 무차별 구타등 행동을 했다지요?

○證人 金宗培 물론 총으로 쏴죽일 사람들 잡아갔으니까 매맞는 것이야 당연한 일 아닙니까?

○張石和委員 당시 戒嚴軍이 市民들에게 그와 같이 잔인한 强硬鎭壓方法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證人은 보았읍니까?

○證人 金宗培 일부 그 못된 소수 軍人들이 政權을 탈취하기 위해서 명분을 찾기 위해서 光州를 마지막으로 짓밟아 버렸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張石和委員 마지막으로 이 光州抗爭의 성격에 관해서 內亂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 몇가지 묻겠읍니다.

證人은 5·18光州抗爭 이전의 學生示威가 平和的으로 진행되었다고 아까 證言했지요?

그렇지요?

○證人 金宗培 예.

○張石和委員 또 그렇기 때문에 市民으로부터도 호응을 받았고 警察도 무력으로 鎭壓하려고 하지 않았었지요?

○證人 金宗培 예.

○張石和委員 그 당시 示威에서 외친 구호는 아까 答辯을 하셨는데 그와 같은 구호를 내건 이유가 있었읍니까?

○證人 金宗培 그때 당시에 非常戒嚴을 擴大實施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政治日程을 지연시킬 이유도 전혀 없었다고 보았읍니다.

그래서 당연히 國民들이 요구할 수밖에 없었읍니다.

○張石和委員 그러니까 그러한 구호는 당시에 무능한 內閣과 政治的 야심을 가진 一部軍部勢力들을 비판하고 民主主義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었지 政府를 전복하려는 內亂을 일으키려는 것은 아니었지요?

○證人 金宗培 실은 저희들이 內亂을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內亂으로 裁判을 받았읍니다마는 나중에 보니까 이번 聽聞會를 지켜보니까 內亂한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것같습니다.

그리고 憲法機關인 國會를 强占해가지고 武裝軍人들을 집어넣어가지고 國會의 機能을 마비시킨 것은 이것은 당연히 나는 內亂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 사람들이 內亂을 했지 우리는 당연한 正當防衛였고 內亂한 적이 없읍니다.

○張石和委員 內亂한 사람들이 거꾸로 되었군요.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알려져 있구만… 결국은 그 內亂이라고 하면은 事前에 모의도 해야 되는데 目的犯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光州抗爭에 참여한 光州市民들이 事前에 모의한 일이 있읍니까?

○證人 金宗培 전혀 없읍니다.

○張石和委員 전혀 없지요.

5·18光州抗爭에서 光州市民들이 무장을 하

게 된 時點이 證人의 경우에는 21日저녁이라고 했는데 그 市民들이 다 21日 저녁때 무장을 하게 되었읍니까?

○證人 金宗培 그것에 대해서 아까 民正黨委員께서 質問하신 것에 대해서 答辯할 기회를 안주어서 제가 다시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미 19日 武器가 稅務署 武器庫에서 나온 줄 알고 있읍니다. 그때 그 武器는 實彈이 없었읍니다. 그리고 警察들이 回收했읍니다.

○張石和委員 그러면 그 결국은 發砲가 있어서 많은 市民들이 죽고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正當防衛手段으로 武裝하게 됐다 그런 얘기죠?

○證人 金宗培 예. 그렇습니다.

○張石和委員 武裝을 한 市民들이 矯導所를 습격한 일이 있어요?

○證人 金宗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聽聞會에서 趙洪奎委員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들었는데 저도 그때 당시에 矯導所를 습격할 이유가 전혀 없었읍니다. 우리가…… 그리고 市民들이 그 당시에 治安不在狀態인데도 강도 하나 없었읍니다. 그리고 金融機關 하나 털리지 않았는데 矯導所 습격으로 나온 소위 戰鬪詳報資料를 제가 봤읍니다. 보니까 22日부터인데 22日은 光州의 잔학스러운 비참한 광경을 全南道民에게 알리기 위해서 光州의 市車輛들이 市外廓으로 빠져나갔읍니다. 그러면 矯導所는 어디가 있느냐 하면 潭陽으로 가는 길목에 가있읍니다. 進入路가 한 50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進入路에다가 軍人들이 「바리케이트」를 친게 아니고 潭陽으로가는 길목에다가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그것을 마치 潭陽으로 가는 사람들을 총격으로 무차별 사격해 가지고 矯導所 습격으로 발표했읍니다.

그리고 특히 矯導所 습격으로 들어와서 그때 당시에 搜査를 받던 사람이 한사람 있었는데 한기운이라는 사람이 지금 光州에서 운전사입니다.

그 사람이 矯導所 습격으로 들어와서 搜査를 받았는데 전혀 근거가 없다고 판명이 났었읍니다.

○張石和委員 結論的으로 정리를 하겠읍니다.

證人의 證言을 종합해 보면은 光州市民들이 처음부터 內亂을 모의한 적이 없었고 또 光州市民들이 武裝을 하게 된것은 戒嚴軍의 잔인한 진압행위와 그 發砲行爲로 부터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최후의 正當防衛手段이었다고 하는 점 그리고 戒嚴軍이 물러간 후에는 秩序維持에 힘을 썼다고 하는 점 또 武裝을 한 상태에서도 先制攻擊을 일체 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 이와같은 사실을 證人이 다 證言을 했죠?

○證人 金宗培 예.

○張石和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점으로 비추어 본다면은 光州抗爭은 결코 內亂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5·17 擴大措置를 하고 國會를 강점한 일부 극소수 政治軍人들의 행위가 內亂이다. 이렇게 證人은 證言한거죠?

○證人 金宗培 예. 그렇습니다.

○張石和委員 그리고 光州市民의 항쟁은 무자비한 軍隊의 학살행위에 대한 市民의 저항권 행사다 이렇게 證人은 證言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戒嚴司가 光州抗爭을 內亂이라고 하고 光州市民을 폭도라고 한것은 자신들의 강경鎭壓行爲를 은폐하기 위한 조작이라고 결국은 證人도 보는거죠?

○證人 金宗培 예. 그렇습니다.

○張石和委員 이상입니다.

제가 절약한 5分을 우리 吳委員한테 드리겠읍니다.

○委員長代理 辛基夏 張石和委員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民主正義黨의 李敏燮委員 訊問해 주십시오. 배정된 시간은 20分입니다.

○李敏燮委員 李敏燮委員입니다.

밤늦게 證人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우리가 事實與否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자리에 證人은 우리가 알고자하는 진실에 대해서 現場의 상황에 관해서 證言하고자 나왔읍니다.

여기서 어떠한 상황이나 모든 政治的인 문제에 대한 결론같은 것을 내리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證人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아까 民主黨 朴泰權委員이 5月18日부터 21日까지의 상황을 물었는데 마치 목격한 것같이 證言을 했읍니다.

진짜 목격을 하고서 證言한 것입니까?

○證人 金宗培 19日하고 20日 新驛의 交戰때는 제가 참여를 안했고 21日 道廳에 集團發砲 때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읍니다.

○李敏雙委員 예. 그러니까 직접 보지 못한 것도 실감있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證人 金宗培 아까 제가 그것을 전제하고 이야기 했읍니다.

○李敏雙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5月17日 부터 5月21日까지 어디 집에 계셨읍니까?

○證人 金宗培 시내에서 市民들과 함께 같이 시위를 했읍니다.

○李敏雙委員 당시에 조사받을 때는 집에 계셨다고 그렇게 자수를 했지요?

○證人 金宗培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읍니다.

○李敏雙委員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읍니까? 내용보다도 상당히 그 당시에 바쁜 상황인데 내용이 없어서 집에 있었다 이렇게 할 정도의 무슨 사정이 있었읍니까?

○證人 金宗培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읍니다. 다른 의도가 없고…

○李敏雙委員 알겠읍니다. 그리고 아까 5月21日 下午 集團發砲가 처음있었다고 했는데 證人은 21日 저녁부터 무장을 했다고 했지요?

○證人 金宗培 예.

○李敏雙委員 그러면 21日 上午부터 道廳으로 나간 것으로 아는데 무장을 하고 나갔읍니까?

○證人 金宗培 그날 저녁에는 空輸部隊들이 뒤늦게 나갔지마는… 그날 저녁에는 밤늦게 空輸部隊들이 전부 외각으로 퇴진 했읍니다.

그래서 제가 총을 들고 시내를 방황하다가 제가 집에 들어갔었읍니다.

○李敏雙委員 예. 우리가 진실을 그대로 밝히기를 바랍니다. 알지 못하고서 얘기를 잘못하는 것도 僞證일 수 있고 알면서 사실을 은폐한 것도 僞證입니다.

앞으로 제가 묻는 데 대해서 분명히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某 日刊新聞에 「인터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거기에 보면은 釜馬事態 당시에 거기에 7空輸旅團이 투입됐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입니까?

○證人 金宗培 그것은 제가 뒤늦게 확인을 했읍니다마는 어느 자료에서 제가 본 것같았어요. 그래서 鄭鎬溶씨가 창단했다는 것 정도는 제가 알고 있었읍니다마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3空輸가 투입됐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읍니다.

○李敏雙委員 예. 이 시기에 證人의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당시에 釜馬地域에 3空輸旅團 海兵 1師團으로 아는데 이러한 部隊가 주둔한 것을 잘못 알고 바로 오늘인가 어제 「인터뷰」한데서 7空輸旅團이 투입되었다 이러한 무책임한 發言을 한 것은 우리가 진실을 지금 추적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

○證人 金宗培 그것도 釜馬事態의 떳떳한 진압이었다고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것은 물론 제가 실수는 했지만…

○李敏雙委員 무슨 部隊가 투입됐는가가 우리가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新聞 「인터뷰」에서 보면 戒嚴軍의 光州 당시에 최초 發砲時期에 대해서 두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읍니다.

하나는 21日 下午 1時半 道廳 앞이고 또 하나는 21日 밤 9時께……

아마 8時半 全南北 戒嚴分所에 自衛權發動이 된 시간을 9時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모양인데 이 당시에 戒嚴司令官의 發砲지시와 21日 1時30分 道廳앞에서의 發砲는 그 당시에 그대로 말씀을 한 것을 보면 道廳앞에 發砲 지시는 光州 상무대 滯在하고 있던 鄭鎬溶 特戰司令官의 명령이 분명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당시에 鄭鎬溶司令官이 光州에 내려와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까?

○證人 金宗培 鄭鎬溶씨가 光州에 있든지 서울에 있었든지 그것은 관계가 없읍니다.

그 證言은 제가 지금 平民黨에 있는 그때 당시 31師團長 이었던 鄭 雄씨의 證言에서도 그 부분이 나왔읍니다마는 제가 밝히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指揮體系의 二元化 때문에 21日 午後 9時에 自衛權發動指示가

떨어졌는데 왜 1時30分에 집단발포를 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法的으로 보더라도 自衛權發動指示 이전에 그 발포한 것에 대해서 死亡者에 대해서는 당연히 殺人罪입니다. 정식발포가 없었는데 自衛權發動指示가 없었는데 1時반에 발포 해가지고 그 수많은 市民들이 죽은 것은 당연히 殺人罪입니다.

저는 그것을 주장하고 싶었고 그때 당시의 指揮體系의 二元化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읍니다.

○李敏雙委員 證人은 軍隊를 다녀왔읍니까?

○證人 金宗培 예. 갔다 왔읍니다.

○李敏雙委員 그러면 21日 下午 1時30分에 발포명령은 당시 鄭鎬溶司令官이 내리고 또 저녁에 발포명령은 戒嚴司令官이 내리고 軍隊의 발포명령 내지는 作戰指揮가 이렇게 二元化되는 것을 正常的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證人 金宗培 그것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입니다.

鄭 雄씨의 證言에서도 그것이 나왔는데 空輸部隊 최초의 7空輸를 31師에다가 배속을 시켰지만 자기가 「콘트롤」을 못했다는 것이에요. 空輸部隊에 대해서… 또 그 때 당시에 正式指揮權 發動指示가 21日 戒嚴司로 내려진게 午後 아홉時였는데 왜 그날 1時반에 집단발포가 되었느냐 그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指揮權 소위 二元化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李敏雙委員 그 이야기는 지금 두번째인데 제가 묻고자 합니다.

지금 指揮體系가 二元化되어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까?

○證人 金宗培 그렇습니다.

○李敏雙委員 軍의 指揮體系가… 그러면 道廳앞에서의 상황이 당시에 군중이 어느정도 모여 있었읍니까?

10萬名 정도…

○證人 金宗培 錦南路에 가득차 있었기 때문에 한 10萬 정도 됐을 것입니다.

○李敏雙委員 戒嚴軍은 道廳안에 포위되어 있었읍니까?

○證人 金宗培 대치하고 있었읍니다. 포위가 아니고…

○李敏雙委員 道廳構內에만 있었읍니까?

○證人 金宗培 構內가 아니고 道廳하고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읍니다. 全日「빌딩」앞입니다.

○李敏雙委員 상황이 급박 할 경우에 軍의 경우 자기의 自衛를 위한 自衛權의 발동에 관해서는 누차 얘기가 나왔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道廳앞에서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證人 金宗培 그것에 대해서 자꾸 自衛權發動이라고 그러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 할 뿐만 아니라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그날 1時30分인데 날씨도 유창한 날이었읍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절대 발포할 수 있는 위기상황이 아니었읍니다.

「버스」가 쭉 軍隊「바리케이트」를 보고 갔읍니다. 밀고 갔는데 그것을 충분히 피할 수도 있었읍니다. 왜 피하지 않고서 오히려 거기서「버스」에 탔던 사람들에게 사격을 가해가지고 그 자리에서「버스」에 탔던 사람들이 여러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읍니다. 그것이 어떻게 自衛權發動입니까? 그 대낮에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큰「버스」가 지나가는데 그것을 왜 못 피합니까? 그것을 오히려 그쪽에서 발포해가지고「버스」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자리에서 즉사했읍니다.

○李敏雙委員 지금 말이지요. 證人은 鄭 雄將軍의 얘기를 참고를 하자면 당시에 空輸特戰團이 그 당시 자기 指揮下에 있지 않았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것을 토대로 그러면 空輸特戰團의 指揮權을 空輸特戰團長이 갖고 있었지 않느냐 이러한 그쪽의 얘기를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분명히 지금 空輸特戰團이 3旅團 7旅團 11旅團 그쪽으로 파견되면서 31師團에 배속되어서 거기에 作戰指揮를 받고 있었던 사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證人 金宗培 장본인인 鄭 雄將軍의 陳述을 저는 믿을 수 밖에 없읍니다.

장본인이기 때문에…

○李敏雙委員 그리고 이러한 軍의 作戰 指揮體系 또 發砲指示가 二元化되어서 마음대로 내릴 수 있다 하는 그 근거를 그러니까 지금 鄭 雄將軍의 얘기에 근거한 것외에 다른 것은 없읍니까?

○證人 金宗培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읍니다.

指揮體系 二元化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다른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李熺性戒嚴司令官을 통해가지고 그때 戰鬪敎育司令部로 내려온 指揮體系의 소위 自衛權發動指示가 허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람이 實勢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指揮體系의 2元化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李敏雙委員 지금 우리가 진실을 캐는 것입니다. 軍의 作戰이면 作戰에 원리와 모든 관행과 이런 것을 우리가 추적하고 진실을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지 實勢 虛勢 이러한 政治的인 의미의 어떤 공세를 여기서 論하는 자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하다 보면 제가 지금 時間이 너무 촉박한데 하나 하나 간단히 묻겠읍니다.

화염방사기를 사용했다 하는데 이 화염방사기를 사용하면 새까맣게 그을리고 또 여러가지 참혹한 모습으로 되는데 「비디오」라든가 현장을 보았거나 아니면 본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까?

○證人 金宗培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보았읍니다. 그 당시에 代辯人으로 있으면서 죽었던 윤상원이라는 사람을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제가 憲兵隊영창에서 보았읍니다. 보니까 온몸이 전부 까맣게 그을려 있었읍니다. 그리고 지난번 國會에 제출한 戰鬪詳報에 보니까 화염방사기를 사용했다는 증거들이 얼마든지 많이 나오고 있읍니다. 그 자료 좀 보십시오. 저는 보았읍니다.

○李敏雙委員 나중에 그것은 우리 調査特委에서 별도로 조사를 하겠읍니다. 분명히 자료를 제시해 주기 바라고 그전에 얘기한 것중에 하나 분명히 證人이 僞證하고 넘어간 것은 지난번 21日 下午 1時30分 道廳앞의 최초 發砲에 證人은 鄭鎬溶將軍이 發砲指示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鄭鎬溶將軍은 서울에 있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읍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僞證이니까 나중에 우리가 별도로 처리를 하겠읍니다.

다음에 空輸部隊投入에 대해서 왜 鄕土師團도 있고 戰敎司도 있는데 光州에 空輸部隊를 투입했느냐 이것은 光州에만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까 어디 全州나 大田이나 서울이나 다른 데 투입된 것은 모르고 있읍니까?

○證人 金宗培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왜 그때 당시에 戰鬪敎育司令部도 있고 31師 鄕土師團이 있는데 空輸部隊라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도 군대갔다 왔기 때문에 가장 特殊訓鍊을 받고 잔인한 部隊로 알고 있읍니다. 왜 그 잔인한 부대를 光州에다 파견했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李敏雙委員 이 문제도 여러가지로 우리 特委에서 밝힐 課題입니다. 그 당시에 신속히 또 인접해 있는 부대로서 韓·美間에 協議없이 어떠한 秩序維持와 回復을 위해서 투입할 수 있는 軍이 어떤 軍이었느냐 하는 문제로서 다 규명이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時間이 없어서 간단 간단히 하겠읍니다.

證人은 소위 김창길 前 收拾委員長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25日 밤에 자기의 가까운 세력으로 收拾委員長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道廳을 지켰는데 그 당시에 道廳地下室에는 폭약과 수류탄이 얼마정도 있었읍니까?

○證人 金宗培 그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상당한 많은 분량의 폭약들이 있었읍니다.

○李敏雙委員 그 당시에 戒嚴司쪽에서 누구 民間人을 들여 보내서 그 수류탄이 옆에 있을 때 그 TNT 폭약을 자극하면 約 3,000상자 光州市를 半을 폭파시킬 수 있는 이런 위력을 가진 폭약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온건한 학생들 몇 사람을 가까이 해가지고 雷管을 제거하다가 한 사람이 죽은 사실을 알고 있읍니까?

○證人 金宗培 그것은 제가 전혀 몰랐읍니다.

○李敏雙委員 여러가지 잡지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아직 못읽었군요.

○證人 金宗培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일이 저는 없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李敏雙委員 그러면 이러한 폭약과 수류탄 이러한 것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저항하다가 만약에 수류탄의 雷管이라도 하나 터진다면 이것이 엄청난 우리 光州市民의 피해 人命

被害를 초래할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읍니까?

○證人 金宗培 물론 그때 당시에 수류탄이나 폭약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市民을 괴롭히기 위해서 거기다가 보관하고 있지 않았읍니다. 그때 당시에 空輸部隊들이 무차별 虐殺을 해 왔기 때문에 수류탄아니라 폭탄아니라 原子爆彈이라도 갖고 空輸部隊들한테 던져 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읍니다.

○李敏雙委員 그러면 그러한 심정을 자제하고라도 어떻게해서든지 선량한 우리 光州市民들을 위험으로부터 모면하도록 하는 이러한 생각 또 그리고 끝까지 거기서 抗爭을 하면 戒嚴軍에게 끝까지 死守할 수 있다고 확신을 했읍니까?

○證人 金宗培 저희들은 물론 그때 당시에 「칼빈」소총밖에 없었읍니다.

그리고 軍隊 갔다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기 때문에 戰鬪 소위 역량으로 봐서는 상당히 미약한 상태에 있었읍니다.

그러나 空輸部隊뿐만 아니라 軍人들이 市外廓에 상당한 많은 숫자들이 현대장비를 갖고 있다는 것도 알았고 또 그 많은 軍人들이 「탱크」를 몰고 들어온다는 것도 알았읍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총을 버리고 나갈 수가 없었읍니다.

끝까지 투쟁하고…

○李敏雙委員 그 당시에 김창길 前委員長은 光州市民 80萬名 生命을 도마위에 올려놓고 어떤 政府와 도박할 때 그 승률이 99.9%이고 실패율이 0.1%밖에 안된다 해도 도박을 강행해서는 안된다. 그 0.1%의 실패율에는 80萬名의 生命이걸려 있다 하는 얘기를 25日 밤에 이렇게 당시 收拾委員會에서 했는데 기억하고 있읍니까?

○證人 金宗培 그것은 김창길이의 생각입니다.

○李敏雙委員 그러면 그 당시에 오랫동안 光州市가 無政府狀態의 官公署라든가 모든 機關이 제 기능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또 外廓의 차단으로 生必品의 근절 또 기타 여러가지 市民生活의 불편한 점이 늘어 가고 있었읍니다. 이런 상황에서 長期戰 채비를 갖추는 것이 불가피 했다고 판단했읍니까?

○證人 金宗培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할 이야기가 많이 있읍니다.

5月26日 그때 당시에 民正黨 國會議員도 지낸 具龍相씨가 市長을 했읍니다. 그래가지고 具龍相씨가 주재한 道局長團들과 같이 連席會議를 했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學生代表로 들어 갔는데 거기에서 제가 강경한 요구를 했읍니다.

市民들에게 더 이상 불편을 주어서는 안되니까 市場機能을 정상화 시켜주고 市內「버스」를 운행해 주고 警察들이 나와가지고 治安維持를 담당해 달라고 제가 거기서 부탁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리고 外廓에 軍人들이 포위를 하고 있었지마는 光州市民들은 그 당시에 굶어 죽은 사람 없었읍니다.

다 生必品을 서로 나누어 쓰면서 정말 아름다운 市民共同體였읍니다.

○李敏雙委員 물론 그 당시까지는 그렇게…

○委員長代理 辛基夏 마지막 質問으로 해주시지요.

○李敏雙委員 절박한 生必品의 빈곤까지는 안느꼈을지 모르지요.

그러나 그런 長期戰化가 될때 그러한 具龍相 市長한테 요구한 사항 또 박남선이란 狀況室長이 長期戰을 위한 市內의 모든 兵力配置 이런 것이 더이상 갈 경우에 결국은 戒嚴軍을 막지 못할 경우에 오는 그러한 피해상황에 대해서 證人은 냉정하게 생각을 했어야 된다고 本委員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 당시 주일날 光州의 敎會에서는 빨리 이 光州의 모든 상황들이 正常化 되고 희생이 極少化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들이 많이 울려퍼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證人이 끝까지 어떠한 감정을 앞세워서 도저히 이 戒嚴軍에게 수류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저지 하지 않았던들 만약에 마지막 단계에서 道廳平定作戰에 있어서도 한 사람의 희생도 내지 않고서 이 사태가 正常化될 수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政府의 입장에서 이러한 그 당시에 長期戰化의 양상이 전개되고 할 때에 무작정 언제까지나 이러한 狀況을 방치할 수밖에 없

겠는가 하는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證人 金宗培 그때 당시에 저희들도 빨리 수습하고 싶었읍니다. 그리고 武器도 빨리 반납하고 싶었읍니다. 왜냐 하면 그때 당시에 空輸部隊들이 市外廓으로 나갔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싸워야 할 대상이 없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市民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주장한 정도의 要求事項이 관철되어야만이 武器를 반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은 銃을 들고 싸워야 될 전혀 必要性이 없었읍니다.

軍人들이 27日 武裝을 하고 道廳을 습격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수해 놓은 武器를 다시 再支給해 가지고 저희들이 싸웠던 것입니다.

○李敏燮委員 그러니까 22日부터 언제 戒嚴軍이 들어올지 모르는 절박한 狀況에서 26日에 또 일부 戒嚴軍의 進入動作이 있었고 또 27日에는 들어올 것이라는 이러한 狀況을 알고서 꼭 武器를 들고 여기에서 맞서서 희생을 내는 것만이 현명했던 것인가 하는 것은 오로지 歷史가 나중에 評價를 할 것입니다.

光州의 모든 어려운 비극적인 狀況을 보다 우리가 정말로 인내와 또 서로의 이해와 협조와 이런 것으로 좀더 우리가 잘 수습을 해서 조금이라도 희생이 적게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정말 그 당시에 光州의 敎會에서 나왔던 이러한 痛恨의 祈禱들이 다시 없는 그러한 狀況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러한 調査를 深夜까지 한다는 것을 아시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읍니다.

○委員長代理 辛基夏 다음은 마지막으로 統一民主黨의 吳景義委員 訊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吳景義委員 예. 늦은 시간까지 證人과 또한 여러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本委員은 訊問에 들어가기 전에 委員長님께 간단하게 議事進行發言으로써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李敏燮委員님께서도 政治的인 攻勢는 서로 피하자는 말씀을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까 어떤 同僚委員께서 말씀하시기를 證人에게 충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일면 고맙게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말씀 내용은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불쾌하고 또한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證人에게도 기회를 드리고 또한 本委員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安榮基委員님께서 말씀하시기를 證人은 黨籍이 있느냐? 그리고 어느 黨에 所屬을 했느냐 현재 職責은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나가시다가 마지막 結論部分에서는 偏狹한 뭐 둥둥 그런 운운하시면서 證人은 이러한 부분을 是正을 하라는 忠告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本委員이 듣기로는 本委員도 民主黨에 所屬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렇게까지 물어서 우리 民主黨을 한다는 자체가 偏狹한 것인지 아니면 光州民主化運動을 하는 그 과정에서 市民 學生을 代表했는 證人이 偏狹한 생각을 살못 했다는 것인지 그 부분이 本委員이 듣기로는 조금 언짢은 부분이고 또한 證人에게도 忠告의 말씀만은 고맙지만 거기에 따르는 상응한 答辯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할 것인데도 委員長님이나 또는 安委員님은 그렇게 말씀을 던지는 것으로 끝을 냈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證人이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또한 委員長께서는 議事進行을 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점이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되지 않겠느냐 本委員의 常識으로는 우리가 幹事會議에서도 이미 얘기가 여러번 된 적이 있읍니다마는 重複證言도 피하자 그리고 證人에게 侮辱的인 發言도 하지 말자 議事進行의 沮害要因도 우리는 스스로 자제하자 또는 聽聞會運營의 여러가지 하는 일에도 相互協調하자 그런 이야기들을 누차 했읍니다.

그리고 우리가 證言 鑑定法에 보면 第9條에는 證人을 보호해야 된다는 條文이 뚜렷히 明文化 되어 있읍니다. 이 條文에는 國會에서 證人 鑑定人 參考人으로 調査받은 者는 이 法에서 定한 處罰을 받는 외에 그 證言 鑑定陳述로 인하여 어떠한 不利益의 處分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僞證으로써 우리는 얼마든지 國會法에 의해서 處罰할 수도 있겠읍니다마는 本委員이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發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委員長님이나 또는 證人에게 기회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고 訊問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委員長代理 辛基夏 司會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새벽 3時가 다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모두 신경이 조금씩 예민해 지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吳景義委員님 한분 質疑를 하시면 우리 證人 金宗培씨에 대한 證人訊問은 다 끝나게 됩니다.

지금 安榮基委員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吳委員님이 말씀하시고 또 安委員님이 말씀하시고 또 證人께서 말씀하시게 되면 서로 黨對黨의 말이 오고갈 것 같고 또 어떻게보면 감정이 조금씩 조금씩 「에스컬레이터」되어 가지고 어려운 狀況이 될 염려도 없지 아니합니다. 吳景義委員님께서 議事進行發言 이렇게 하신 것으로 끝내고 우리 吳委員님께서 이제…

○吳景義委員 왜 남의黨 民主黨 이야기를 했으면 民主黨이 어떻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辛基夏 이제 우리 吳委員님 그 정도로 해 주셨으면…

○吳景義委員 아니! 民主黨委員이요? 묻고 黨職이 뭐냐 다 물어가지고 偏狹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辛基夏 吳景義委員님! 좀 들어주시고 議事進行發言으로 충분한 意思를 開陳하셨으니까 이제 質疑해 주시지요. 訊問해 주시고 서로 양해해서…

○吳景義委員 아니 그 충고에 대해서 證人은 그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어디 무엇이 偏狹했다는가는 해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民主黨을 해서 偏狹한 것이요. 그 市民學生委員長을 한 부분이 偏狹한 것이라는 말이요. 한마디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辛基夏 그리고 吳景義委員님! 같은 우리 吳委員님 所屬에 계시는 같은 同僚委員님들도 또 그렇게 생각하시고 서로 마음을 조금 더 부드럽게…

○吳景義委員 우리 서로 相互間에 이 聽聞會를 위해 光州眞相을 糾明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왜 하필이면 그런 訊問을 해가지고…

○委員長代理 辛基夏 혹시 安委員님도 표현에 조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실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이대로 넘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吳景義委員 저분 人格을 내가 모르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저 분의 人格을 알기 때문에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委員長代理 辛基夏 이제 質疑해 주시지요. 吳委員님 訊問해 주십시오.

○吳景義委員 밤 늦게 미안합니다.

5月27日 證人께서는 逮捕가 되었는데 그날 새벽에 어디로 끌려갔지요?

○證人 金宗培 憲兵隊로 끌려갔읍니다.

○吳景義委員 끌려가서는 拷問을 당한 적이 없읍니까?

○證人 金宗培 매 좀 맞았읍니다.

쏴 죽일 사람을 잡아다 놓았…니까 매 맞는 것이야 뭐 당연한 것 아닙니까?

○吳景義委員 다른 拷問은 없고요?

○證人 金宗培 저의 이빨도 조금 깨지고 여러군데 상처들도 좀 나고 그랬읍니다.

○吳景義委員 이빨도 몇個 깨지고?

○證人 金宗培 예.

○吳景義委員 保安隊地下室에서 搜査를 받고 그 뒤에 어디로 또 옮겨졌읍니까?

○證人 金宗培 처음에는 憲兵隊로 끌려 갔다가 그때 당시에 상당히 중요한 役割을 했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保安隊地下室로 갔었읍니다. 거기에서 한 열흘동안 搜査를 받고 憲兵隊로 다시 왔읍니다.

○吳景義委員 그때 거기에는 몇명 정도 收容이 되어 있었읍니까?

○證人 金宗培 憲兵隊 營倉에는 한 7·800名 정도 있었읍니다.

○吳景義委員 戰敎司憲兵隊의 營倉은 생활하기가 어떴읍니까?

○證人 金宗培 그때 날씨가 워낙 더워가지고 營倉은 굉장히 좁았읍니다. 그런데 숫자를 너무 많이 집어 넣어가지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포개 잤읍니다. 그리고 밥먹는 것은 정말로 捕虜收容所를 방불할 정도로 비참했읍니다.

밥은 軍隊 平食器에다가 국 좀 말아 가시고 밥 몇 숟갈씩 떠 주면서 배가 고파가지고 다들 밥 한 식기가 들어오면 그것을 한 숟갈씩 나누어 먹는 그런 비참한 광경이었읍니다.

○吳景義委員 證人은 무슨 罪로써 裁判을 받았읍니까?

○證人 金宗培 內亂罪로 받았읍니다.

○吳景義委員 內亂罪였읍니까? 그 당시의 裁判廷 분위기는 어떠했읍니까?

○證人 金宗培 法廷의 분위기는 그 큰 事件에 記者 한名이 들어와서 取材를 했읍니다. 그리고 지희들이 私選辯護士 하나 選任 못하고 정말로 軍人들이 무장한 廷兵들이 한 사람씩 사이에 끼어앉아가지고 그 험악한 분위기에서 정말 외롭게 裁判을 받았읍니다.

○吳景義委員 國選辯護士는 있었읍니까?

○證人 金宗培 國選은 있었읍니다.

○吳景義委員 證人을 비롯한 被告人들의 태도는 그때 어떠했읍니까?

○證人 金宗培 그때 당시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集團으로 裁判을 받았는데 그중에 한 사람도 잘못했다고 한 사람이 없었읍니다.

전부 다 의연하게 裁判을 받았읍니다.

○吳景義委員 그때 法廷에서 最後陳述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해보시지요.

○證人 金宗培 제가 사실은 「크리스챤」이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선한 「사마리아」人에 비유를 하면서 제가 陳述을 했읍니다. 그리고 總委員長으로서 정말로 책임을 묻겠다면 십자가를 지겠다고 그랬읍니다.

○吳景義委員 證人은 그 당시에 市民學生鬪爭委員長으로서 法廷에서 死刑宣告를 받은 적이 있지요?

○證人 金宗培 예.

○吳景義委員 살아남은 사람중에서는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사람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加害者들을 어떻게 處罰하기를 바라고 있읍니까?

○證人 金宗培 아까도 某委員님께서 質問을 주셔서 答辯을 했지만 당연히 法的인 審判들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吳景義委員 그리고 그 외에 무슨 하실 말씀계세요?

○證人 金宗培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읍니다.

○吳景義委員 이상입니다.

○李光魯委員 議事進行發言 한마디만 하겠읍니다.

○委員長代理 辛基夏 이제 다 끝났읍니다……

○李光魯委員 議事進行發言입니다.

○委員長代理 辛基夏 꼭 하셔야 되겠읍니까?

李光魯委員 말씀하세요.

○李光魯委員 앞으로 光州民主化特別委員會를 계속 앞으로 한다면 새벽 3時까지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얼마든지 날짜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나 하고 둘째로 아까 證人이 原子爆彈이라도 있으면 던지고 싶은 욕망이었다 하는 用語같은 것은 統制되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辛基夏 李光魯委員께서 議事進行發言으로 새벽 3時까지 하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말씀은 아주 유의해서 앞으로 4黨幹事會議에서 可及的 이러한 일은 없도록 最大限으로 노력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리고 金宗培證人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읍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야심한데 새벽 세時까지 여러 委員님들 아주 深度있는 訊問을 해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읍니다.

이제 오늘은 이만 聽聞會를 끝마치기로 하고 散會를 宣布하겠읍니다.

(2時59分 散會)

○出席委員

文東煥	權海玉	金吉弘
朴嬉太	辛卿植	沈明輔
安榮基	李光魯	李肯珪
李道先	李敏燮	鄭東鎬
鄭昌和	金泳鎭	辛基夏
李海瓚	趙贊衡	趙洪奎
崔鳳九	金光一	朴泰權
吳景義	李仁濟	張石和
金文元	金仁坤	玉滿鎬
朴燦鍾		

○委員아닌出席議員

張慶宇	金元基	李敦萬
鄭雄	許京萬	洪起薰

申 榮 國

○出席專門委員및立法審議官

專 門 委 員	陳 在 勳
立 法 審 議 官	金 永 善

○出席證人

鄭東年(김대중내란음모사건관련사)

鄭基用(당시 군검찰관)

沈載哲(당시 서울대학생회장)

金宗培(당시 광주시민학생공동투쟁위원장)

鄭昇和(전 계엄사령관)